민희진 대퓨 제4회 앙상블

2024.10.29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유튜브

TRANSCRIPT ARCHIVE

문서 공개일 : 2024.10.30

이 문서는 개인 감상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PC 혹은 어플에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3NEVERDIE

---

1. 버니즈데이의 인터뷰 성사와 찾아온 가처분

2. 기자회견 이야기, 뷔와의 연락

3. 사옥 인테리어, ADHD라서요

4. 가처분 각하, 다큐, 하이브의 루머, 미행, 협박

5. 스릴러에도 항상 뭐, 따뜻함이 있죠

6. 좀 그냥 멜로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7.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 프란시스 레이, 아트북

8. Earth, Wind & Fire와 라이브앨범

9. 뉴진스 마당놀이, 버니즈 데이, 팀뉴진스의 애정

1부 끝 [인터미션] 1:49:28 2부 시작

10. 플리 : 장 자크 페리, 비트매니아, 브루노 니콜라이

11. 버니즈캠프 인 도쿄돔 2024

12. 팀 뉴진스, 크루 버니즈, 그라데이션 성장

13. 하이브 내부보고서와 업계, 미끼의 보상, 미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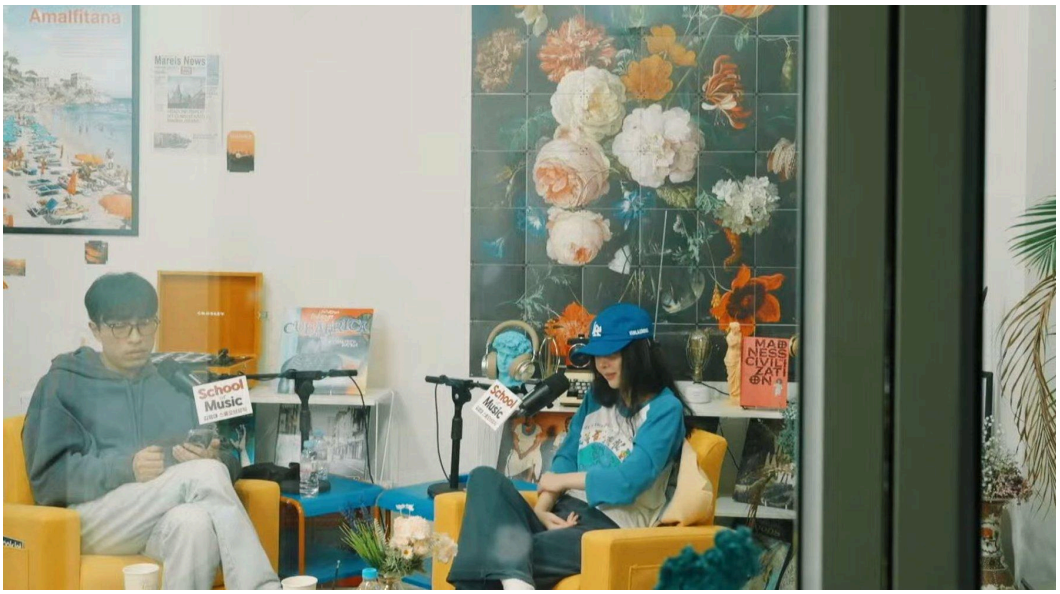
14. 플리 : 프란시스 레이, 볼라레 비아

15. 직관 안의 관념, 경영과 프로듀싱

16. 플리 :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 슬로우댄싱, 뮤비감독들

17. 내가 경험한 인생은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영상 링크 (3:26:34)



1. 버니즈데이의 인터뷰 성사와 찾아온 가처분

김영대 : 아무튼 어떻게 이게 이 일이 성사가 됐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초대손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로듀서 민희진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희진 : 안녕하세요. (웃음)

김영대 : 왜 웃으세요? 시작부터

민희진 : 너무 오랜만에 뵈어가지고

김영대 : 그렇죠 완전 옛날이었어요.

민희진 : 맞아요.

김영대 :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원래 이 인터뷰는 희진님이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른 이유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전에-

민희진 : 맞아요.

김영대 : 제가 이제 모 팟캐스트에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입보이 나오고 나서였어요. 디토 나오기 전에. (네) 그때 음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인터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또 기꺼이 해주신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사전 인터뷰 개념으로 한번 미팅을 했었죠?

민희진 : 맞아요. 근데 그게 2년 전이에요.

김영대 : 2년 전. 디토 나오기 전에.

민희진 : 맞아요. 디토 나오기 전에.

김영대 :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웃음)* 그 이후에 갑자기 너무 큰 일에 휘말리셔서.

민희진 : 아니 그것도 그랬고 또 디토 때 저희가 또 되게 바빴었잖아요. 되게 바쁘고 그러니까 디토부터 슈퍼샤이까지 거의 죽음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도 또 뵐 수가 없었었고. 그 사실은 잘 모르는 사이.

김영대 : 그렇죠 몇 번 사실 제가, 어떤 식이냐면 인터뷰 요청드리고 "하죠!" 라고 했다가 엎어지고. (맞아요) 그냥 몇 번 됐었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지금 새로 런칭한 우리 스쿨 오브 뮤직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일단 너무 반갑고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 *(웃음)* 그러니까 사실 그 안을 공유는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긴 해요.

민희진 : 아니 저는 사실 그걸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웃음)* 아니 너무 바빴고, 너무 읽을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 지금 좀 여러가지가 신기한 게 일단 유튜브라는 걸 처음 나왔어요.

김영대 : 그러신다면서요?

민희진 :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떠드는 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보는 상황이 살짝 지금은 좀 어색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데서만, 이제 최근에 이제-

김영대 : 청중 있는 데서

민희진 :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면서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순간 드는 생각은 아니 혼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더 어떻게 하지? 혼자 얘기하는데?

김영대 : 카메라 보고 하잖아요 그냥

민희진 : 네. 근데 예전에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서.

김영대 : 기억이 안 나니까 너무 옛날이라. 네 근데 그때는

민희진 : 롤링스톤 사무실 아니었어요?

김영대 : 그랬던 것 같아요.

민희진 : 겨울에 엄청 저희, 문도 그때 갑자기 닫히고 막 그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영대 :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희진 : 상상도 못했죠. 완전. 완전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저는 진짜 뭔가 사람들이 저한테 막 화제의 인물이다 막 이러잖아요.

김영대 : 논란의 인물, 화제의 인물.

민희진 : 왜 논란이라고 하세요. *(웃음)* 근데, 근데 그런 얘기가 사실 이렇게 막 와닿고 이렇지는 않았는데 오늘 원래 그... 오늘이 버니즈 생일이거든요.

김영대 : 버니즈 데이.

민희진 : 그래서 사실 이제 날짜를 몇 개 주셨었잖아요. 근데 한참 전이었고

김영대 : 한참 전이었죠.

민희진 : 그래서 그냥 기왕이면 버니즈 생일날 해야지 하고 했던. 그래서 고른 건데.

김영대 : 아 그랬어요.

민희진 : 근데 오늘 가처분 그게 나올 줄 몰랐잖아요. *(웃음)*

김영대 : *(웃음)* 그 시작부터

민희진 : 그때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김영대 : 그때 몰랐죠 진짜. 그 날짜를 몰랐었으니까.

민희진 : 오늘 근데 나자마자 또 방송을 하게 되고 이래서 뭔가 화제가 될 운명인가?

김영대 : 저야말로 그날이 오늘인 줄 알았으면 다른 날을 다시 제안을 드렸을 것 같아요.

민희진 : 그랬을 거... 아니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김영대 : *(웃음)* 이렇게 제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하는 일에, 제가 라디오도 하고 있고 이렇지만, 이렇게 방송, 민희진이라는 사람을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광역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은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민희진 : 어그로가 끌렸나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김영대 : 아니 뭐 새벽에 뭐, 트위터나 인스타 올렸다가 또 한바탕 했죠.

민희진 : 왜요?

김영대 : 글쎄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민희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희진 : 아~

김영대 : 민희진을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민희진 : 근데 평론가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김영대 : 하... 그니까 참, 이것도 이건 제 얘기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막 말씀을 드릴 건 아닌데 저는 어쨌든 뭔가를 계속 평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고.

민희진 : 아 예. 그쵸 그쵸. 그럴 수 있겠네요.

김영대 :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하다. 저 사람 편이다.

민희진 : 아 맞아요. 네.

김영대 : 민희진을 불렀으니까 김영대는 민희진의 뭔가를 옹호해주러 불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쵸) 나는 정말 프로듀서 민희진... *(동시 웃음)*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죠?

민희진 : 그리고 그때 뉴진스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구.

김영대 : 예 맞아요.

2. 기자회견 이야기, 뷔와의 연락

민희진 : 저한테 이제 주셨었을 때 어떤 코멘트가, 이분은 한번 너무 봬도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평론가분들도 되게 막 연락 많이 주시고 막 하셨었는데

김영대 :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민희진 :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뵙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나설 상황이나 뭐 그럴 마음도 없었었고. 그럴 어떤 여건, 마음, 컨디션 뭐 이런 게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안 했죠.

김영대 : 그랬죠.

민희진 :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그냥 그 쌩얼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웃음)*

김영대 : 그 쌩얼 나오는 장면 본인의 피드에도 가끔 알고리즘으로 뜨죠?

민희진 : 너무 뜨죠. 처음에는 너무 처음에는 끔찍했거든요? 잘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원래도 막 이렇게 유튜브를, 유튜브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구 너무 그냥... 엄청 어색하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뭐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막 이렇게 '어우'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상하게 잘 나온 사진도 있는데 그 와중에 꼭 그, 그지 같은 사진을 그렇게 골라가지구 그걸 막 이렇게 막 내놓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싫었거든요 그게. 혐오스럽게 싫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이고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하 어때,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게 또 나이도 먹어서 괜찮은 것 같아.

김영대 : 약간 더 무뎌지나?

민희진 : 어렸을 때는 너무 예민하고 막 이게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못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막 강박적으로 싫고 막 이랬거든요.

김영대 : 내 셀프 이미지에 대한 또 자존감도 있고 이러니까

민희진 : 뭘 자존감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웃음)* 그런 게 아니라 예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군가 앞에 나서고 이러는 게 너무 그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가, 그냥 못난 모습을 한 번 보이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 그냥 무뎌지더라고요. 되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저 이제 쌩얼로도 나올 수 있어서 *(웃음)*

김영대 : 근데 지금 지금의 민희진,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이후로 상징되는 민희진이라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상상해 본 적은 없는 민희진이잖아요.

민희진 : 너무 없죠.

김영대 : 그러니까 나지만 내가 아닌 듯한 느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나가서 그런 말을 했지만,

민희진 : 아니 너무 나에요. *(웃음)* 너무 저에요 그냥.

김영대 :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그냥 이젠 자연스럽게 내가 저랬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민희진 :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요?) 너무 군대 있는 거 맞아? 할 정도로

김영대 : 건강하게 잘 있나요?

민희진 : 너무 잘 있고. 원래 그 친구는 되게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해맑은 아이거든요. 저흰 반말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뷔씨' 이런 게 저는 좀 어색해가지고. 그냥 걔는 너무 해맑고 깨발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되게 *(웃음)* 처음에 해맑게 연락와서 "누나 괜찮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김영대 : 아 처음에? 처음에 터졌을 때?

민희진 : 네... 터지고 막.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자기도 언제 연락을 해야 될지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해줘서 고마웠고, 또 막 제 생일날 새벽에 막 그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군대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얘는 정말 너무 살가운 애다.

김영대 : 감동하셨겠는데?

민희진 : 감동에 너무 감동. 왜케 착하지? 뭔가 되게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고마웠죠. 근데 그냥... 얘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김영대 : 기자회견 얘기하다가 그 모습에

민희진 : 아아아 근데 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누나 그렇게 누나의 본모습을 그냥, 이렇게 모든 온 세계에 이렇게 거침없이 보여줘서 자기는 막 저렇게 다 보여줘도 되나?" 나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야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나 그때 엄청 참은 거야. 저 진짜 굉장히 인격적으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제가 현대카드 강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저 너무 착하게 얘기했다. *(웃음)* 진짜. 개쌍욕으로 두시간 넘게 도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자리니까 최대한 참다가 되게 최소한의 욕만 한 거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쌍욕이 안 나와요. 너무나...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스크립트를 원래 이렇게 막 외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걸 못 외워요. 암기력이 없어서. 아예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원래 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제가... 오히려 저는 외우려고 하면 막 꼬이거든요? 생각을 막 해내야 돼서.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겪었던 일을 최대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원래 마음먹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스크립트를 뭘 누가 써줬네... 우리 변호사들도 몰랐는데 내가 이거 할 줄? 저 엄청 말렸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분들이 막 말리고. 그분들은 워낙에 스크립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고 만들어서 하시는... 그걸 누가 언제 짜냐는 거예요. 아침에 막. 제가 아침에 빨리 장소 좀 구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 저는 그런 거 원래 필요 없다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해주세요. 막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된 거라.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제 스타일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재됐었죠.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냥 원래대로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 기자회견 시작하고 한 15분 20분 동안 되게 걱정을 했대요. 제가 절까봐.

김영대 : 아, 말을 잘 못할까봐?

민희진 : 예. 왜냐면은 뭐 플래시 막 꺼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김영대 : 그렇죠 처음에 되게 불안해 보였었어요.

민희진 : 저 전혀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상황이 굉장히 화가 났지만 웃겼거든요 사실? 웃겼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한 말인데. 저는 왜냐하면 팩트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코미디 같아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슨 이상한 블랙 코미디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서. 이게 분노와, 그리고 웃기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었을 때 얼마나 황당해할까? 근데 그 진실까지 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문건 막 까이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나 같으면 저때 깠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깐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는 사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두 시간 안에 어차피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원래 저는 한 세네 시간 더 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아니 세네 시간 정도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두 시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두시간 이십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듣는데 어쨌든 한계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나,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면 사람들이 그 데이터 정리가 안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오늘 갑자기 3일 동안 벌어진 이 이상한 일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새로운 정보를 2시간 안에 쏟아낸 것도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더한 정보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컨텍스트를 모르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누군가와 사이가 어땠고 저땠고 그거를 그날 알게 된 사람들인데 사실 그 저변에는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얘기해봤자 이건 먹히지 않는다. 왜 그 해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해상도가 아무리 높아도 인간은 300dpi까지만 읽거든요. 그 이상 떠들어봤자 내 입만 아프다. 그리고-

김영대 : 정보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민희진 : 오늘 또 다 털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주주간계약에 이게 좀 묶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또 말하지 못한 내용 너무 많고, 컨텍스트도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내용 너무 많고.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이게 당사자 간에 굉장히 이렇게 되게 내밀한 얘기기 때문에. 그 사실 변호사들이랑 이거를 계약 내용을 막 얘기할 때도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걸 서로 이해시키고 얘기하고. 물론 변호사분들은 너무나 조항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내막에 왜 이런 계약을 하게 됐는지, 혹은 이런 내용이 왜 적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제가 상황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김영대 :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도 앞에 것까지 다 설명을 해서

민희진 :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막 사실관계를 엄청 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바이브,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어떤 태도. 왜 일이 이렇게까지 전개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야 상대가. 왜냐면 그 상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곡해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나이 때 그 가족오락관 아시죠? 어렸을 때 그러면 가족오락관...

김영대 : 우리 나이 때라고 그러니까 확 와닿네.

민희진 : 네. 늙은 게 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면 다들. 그냥 뭐

김영대 :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민희진 : 그때 가족오락관에서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말 전달하기 게임' 아세요?

김영대 : 네 '고요 속의 외침'

민희진 : 예 이거 헤드폰 끼고 막 전달하면 나중에 막 엉망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사회생활이나 회사 생활할 때 대화가 거의 '고요 속의 외침' 같은 그런 게임 같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김영대 : 나는 막 떠드는데 딴 얘기로 알아듣고

민희진 : 딴 얘기로 알아듣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듣고. 서로 거의 그런 싸움? 고요속의 외침의 싸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대 :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3. 사옥 인테리어, ADHD라서요

민희진 : 저는 그리고 또 너무 답답하죠. 너무 억울.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별게 다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무슨 어느 이제 다른 팀에서, 회사에서 뭐 자컨을 찍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회사, 갑자기 사무 공간이 이렇게 일하는 공간이 이렇게 확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저희가 오픈 스페이스인데, "저렇게 닭장 같은 데서 막 저렇게 일을 하게해 저거 민희진이 했다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너무 말하고 싶은 게요. 저는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라 프라이빗한 공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설계했었을 때 저의 컨셉은 최초의 설계사들과 얘기했던 컨셉은 다 독방이 주어지는 것 같은, 파티션이 되게 아름답게 구성돼 있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근데 시혁님이, 자기는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걸 한눈에 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픈 스페이스로 해달라고. 페이스북이나 해외 구글 같은 그런 어떤 레퍼런스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회사,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아니 오너가 그렇게 하라는데 그럼 어떡해.

그래서 마침 근데 또 공간도 없었어요. 이 하이브의 그 사옥의 사이즈 자체가 구성원들을 다 채우기 어렵고 또 제가 원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더더욱 공간이 없었어서, 아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네 이런 결론으로.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와중에도 그걸 보장해 주려고 사실 저희가 무빙 랙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너무 보이는 게 싫어서 오히려 제가 조금 가려드리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이제 그걸 또 그 스토리지로 활용하게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건데 아니 나를 탓하더라고. 근데 그걸 또 치사하게 내가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누가 시킨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제 성격은 또 아니라가지고 그냥 참고 있었죠. 예를 들면 그렇게 참은 게 저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에 이제 사방이, 우리는 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를 이제 막 다 보이고 다 모두랑 공유를 하려면 거기를 뚫어놔야 되잖아 다. 근데 꼭 누구 어떤 C가 저한테 "어우 C들은 어느 좋은 자리 구석탱의 자리에 이렇게 박아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 C도 있었거든요. 너무 때리고 싶어가지고 *(웃음)* 그게 너무 얄미워서도 제가 "싫은데? 아닌데? 왜 그거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뭐 그랬던 거.

그리고 사실 또 하이브에서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편하게 커피 그냥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냥 이렇게 티피컬한 업체들이 있어요. 사내에 커피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이랑 하자

했는데 제가 그걸 또 힘들게 싸우고 싸워가지고, 원래는 블루보틀을 하고 싶었고 이제 몇 개의 브랜드들 있었거든요. 근데 프릳츠가 우리나라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스페셜티 커피를. 왜냐면 이게 커피를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회사에서 좀 편하게 쉬려면은 어떤 좀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꼭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아서 그거를 제가 엄청 싸워가지고 진짜 이게 왜 필요한지!

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너무 한심하거든요? 왜 이 브랜드를 내가 이 꼭대기에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꼭대기에 굉장히 높은 고가 있는 이 공간을 왜 카페로 만들고 왜 공용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설득하느라 저 되게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저 말하자면 오늘 밤샐 수도 있는데 *(웃음)*

김영대 : 아 큰일났다. 네.

민희진 : 이것만 얘기해도. 처음에는 무슨 사내에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촬영장을 만들자고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실무를 안 해봤나? 말도 안 되는데. 이거 먼지와 소음과 방음... 아예 공간도 말도 안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런 제안도 저는 받았었고 그것도 일일이 다 싸워가면서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아냐! 때리고 싶은 순간의 연속?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그걸 다 싸워가지고 얻어낸 카페고 지금은 프릳츠 다 너무 좋아해요. 커피 맛있고 이제 좋아해서

김영대 : 저도 몇 번 마셔봤어요.

민희진 : 근데 그런 건 내 칭찬 아무도 안 하잖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구.

김영대 : 근데 한 번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일 때문에 이제-

민희진 :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 때문에 그 좋은 공간들, 다 수면실도 제가 예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고 샤워실 그 심지어 짐도 사실 제가 만들자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직원들이 파크하얏트 짐에서, 파크하얏트 짐이 약간 밖이 보이잖아요 그 뷰가. 그런 데서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가져보라고.

왜냐하면 잠깐 머리 아파서 그냥 짐 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게 멋있는 공간이 보이면서 이렇게 막, 우리는 야경 그 한강이 쫙 보이거든요.

김영대 : 뷰가 진짜 좋죠 예.

민희진 : 그러면 거기서 마음을, 좀 뛰면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부터 제가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문고리 하나까지도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양치실에 어떤 디자인. 그 샤워실의 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일본의 작은 캡슐 호텔에 가도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디자인 잘하니까, 그게 돈이 없어도 후지지 않은 소재들을 잘 골라가지고 유니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냐. 이제 뭐 이런 것들 엄청 고민해가지구 만들어놨는데, 잘한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에어컨을 나보고 *(웃음)* 아니 공조를, 내가 건물을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공조를 심지어 관리하는 팀은 또 따로 있어. 근데 내가 욕 먹어도 그런 팀에서 가만히 있어요. 마치 이제 자기들이 관여 안 한 것처럼.

김영대 : 건물 얘기 우리 언제까지 할 거에요? 그런게 있었다?

민희진 : 아니 그냥... 그때부터 제가 억하심정, 이 회사에 대한 억하심정이 생긴 거라 *(웃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유키즈 나가서두 이 얘기를 너무 오래해서 유재석 씨가 저한테 똑같이 그놈의 건물 얘기하는 *(웃음)*

김영대 : *(웃음)* 아 근데 뭔가 그 건물, 건물과

민희진 : 심지어 그 얘기하다 막 울어가지고 *(웃음)*

김영대 : *(웃음)* 건물과의 관계가 뭔가, 뭔가 지금의 어떤 본인이 느끼는...

민희진 : 그거에 저 복선이었던 거예요 어찌보면.

김영대 : 그렇지 약간, 약간 상징?

민희진 : 나는 그때 회사랑 싸우면서 와 뭐 이렇게 말귀가 안 통해. 내가 도대체 뭘... 이거 하자는 거 다 비용 아꼈지, 그 사람들이 준 예산에 다 맞췄고. 저는요 사실 예산, 이 주어진 제 예산 안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런 걸로 되게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인 아트를 안 하는 거야. 파인 아트는 무한의 나와 경쟁해야 돼. 그러면 막 미치거든요. 내 무한의 끝이 어딘지를 막 해야하는데-

김영대 : 그쵸 리소스를 그냥 극한까지...

민희진 : 상업 미술이 그나마 이제 나랑 좀 맞는 이유는 데드라인이 있고. 나같이 게으른 인간은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거든. 데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주어진 버짓이 있어. 그러면 항상 그 안에서 경쟁하듯이 뭔가 나와의 싸움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미루고 미루다가도 끝판에 막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석 감독님이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우왁 막 하는 스타일.

김영대 : 진작에 했으면 사람들 생각엔 진작에 했으면 더 완벽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또 그건 또 아니지

민희진 : 네 솔직히 진작에 하는 것 같긴 해요.

김영대 : 생각은 늘 하고있는데

민희진 : 왜냐하면 늘 머릿속에는, 그냥 이렇게 늘 뭔가 고질병처럼 갖고 있는 뭔가의 그것처럼 그냥 늘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대 : 생각을 계속하세요?

민희진 : 그럼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 인간이라. 예전에 어떤 친한 포토그래퍼 분이 저한테 야 너는 신경을 다 끊어야 된다 잘라야 된다고.

김영대 : 그니까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쉬지를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잠도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

민희진 : 이게 저는 막, 저는 재택근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사실 어디서 일하느냐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근데 재택을 선호하냐면요, 차 타는 시간이 아까워서예요.

김영대 :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민희진 : 그러니까 차로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김영대 : 운전은 더 못하겠네요

민희진 : 운전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면허가 없어요. 면허도 없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는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면허를 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김영대 : 되게 좋은데-

민희진 : 근데 나는 옆에 앉아서 음악 듣는 게 좋지, 내가 막 이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음악이 들리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음... 가뜩이나 ADHD인데 그것까지 하면서 이거 듣고 저는 그거 못할 것 같거든요.

김영대 : 아니 ADHD 얘기는 왜 갑자기, 갑자기?

민희진 : ADHD라서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생각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면은 누가 보면 저 미친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미리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ADHD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ADHD의 장점이 있듯이 단점이 있거든요. 결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미친 듯이 물도 안 마시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생각이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김영대 : 그렇죠 계속 본인 스스로 가지를 쳐가지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민희진 : 그랬다가 다시 다시 돌아오거든요?

김영대 : 다시 돌아오고

민희진 : 그런 스타일이라

김영대 : 필리버스터 약간.

민희진 :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서 미리 경고와 주의를 준 거죠.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오해하지 마셔라.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다.

4. 가처분 각하, 다큐, 하이브의 루머, 미행, 협박

김영대 :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 제가 오늘 제 컨셉을 잡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민희진 4집이다.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민희진 : 저 오늘 의도치 않게 오늘 옷 입으면서 느꼈는데, 이거 누가, 제가 LA 모자가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LA에 있는 어떤 브랜드, 미국 브랜드 분이 저한테 이걸 이 모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약간 페잌이거든요.

김영대 : 와, 그렇구나.

민희진 : 네. 근데 그거 보내주셨는데 그냥 입다 보니까 이 자켓을 입었는데 제가 2차 기자회견 때 노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1차 기자회견과 2차 기자회견을 합해서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옷을 입게 돼가지구 신기하다. 근데 오늘 또 마침 가처분이야. 근데 발푠데 기각이 됐잖아요? 사실 그 가처분은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처분이 아니었고. 이게 사실 이기는, 이겨도 문제고 힘든 또 이게 있었어서.

김영대 : 각하, 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이제. 참고로 오늘 우리 민희진님과의 인터뷰 컨셉은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하 억울함을 풀어놓고 항상 이제 최근에 노출된 민희진님의 어떤 이미지는 항상 뭔가를 성토하는 거.

민희진 : 그래요?

김영대 :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민희진 : 그건 본인만 갖고 있는 이미지 아니에요?

김영대 : 죄송합니다. 아무튼

민희진 : 성토한 거는 1차에서 끝났고요.

김영대 : 근데 약간 하다 보면 또 이제 약간 또 글로 또 갈 때가 있잖아요.

민희진 : 아니 저는 이런 일이 없어도 원래 성토하는 스타일이에요. *(김영대 폭소)* 원래 그래. 원래 억울한 게 많고 한이 많아가지구.

김영대 :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약간

민희진 : 처음에 옛날에 2년 전에 만났을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저 평론가님이랑 되게 오랫동안 제 얘기를 성토하면서

김영대 : 사실 그냥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민희진 : 네 저 혼자 엄청.

김영대 : 그냥 그냥... 이렇게 듣다가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거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정작 인터뷰를 안 했어요.

민희진 : 맞아요. 그리고 그날 풀고 온 거죠.

김영대 : 하 참 *(웃음)*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컨셉을 잡은 거는 뭐였냐면 컨셉이라기보다 내가 뭘 못 봤냐 했더니 진짜 뭔가 대화를 나누는 민희진이라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았어요. 그 동안의 과정에서는. 나와서 이제 마이크 잡고 뭔가 엠씨잉을 하는 느낌은 봤어. 나와서 뭔가를 사자후를 토하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뭔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민희진 : 음~

김영대 : 일상적인 대화의 흐름을 못 봤잖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못 봤어요 그거는 아직.

민희진 : 근데 저는 똑같아요. 그 모습이나 뭐 대화나

김영대 : 그래서 뭔가 이런 좀 인터렉티브한 상황에서 이 사람의 그냥 뭐 자연스러운 얘기들을 좀 끌어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따뜻함으로 나름 잡았거든요. 따뜻함.

민희진 :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요새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김영대 : 그래서 아무튼 좀 따뜻한 그런 대화 느낌으로 잡았는데, 그래도

민희진 : 제가 딴 얘기하려고 하니까 바로

김영대 : 바로 잘랐어. *(민희진 웃음)* 바로 잘랐는데 그...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 각하라는 거를 그래서 저도 워낙에 그 법률은 잘 모르니까 찾아봤는데, 그게 이를테면 이게 법률적으로 주주들 맞죠? 그 이제 결정을 이사들의 결정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제, 일종의 드랍시킨 거잖아요? 할 수 없다?

민희진 :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이게 법이 그리고

김영대 :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민희진 : 변호가, 이걸 이런 걸 해보니까 법이요, 하... 이게 좀 뭔가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봐야 아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주주간 계약을 지켜라! 라고 1차 가처분에서 이제 제가 이겼잖아요? 통보를 했는데 하이브와 어도어는 이제 한 몸이냐 한 몸이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한 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 지금 싸움 중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싸움 중에, 제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저한테 굳이 왜 이런 거 하냐라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데,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뭘? 난 쟤네 주장처럼 내가 뭐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김영대 :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주장했던 거에

민희진 : 네. 그리고 한번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거 될까? 라고. 하 *(웃음)* 그러니까

김영대 : 예상대로는 안 됐네요.

민희진 : 아니요. 예상이 '된다' 라는 예상은 안 했죠. 왜냐면은 변호사님들도 이런 전례가 없다, 이런 소송을 안 한다. 이런 소송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전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이길 승소 확률은 10% 20% 이렇게 보셨어요 애초에. 그렇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하이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웃음)* 그러니까 그냥 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라도 한 번 꺾이면, 이게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한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결백함을 또 드러낼 수도 있고. 누가 뭐 이런 데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막 해요. 사실 내가 미친 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아마 안 할걸요? 피곤하고, 너무 짜증 나는 일이어가지구. 근데 저는 저희는 지금 약간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고 이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결백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게 처음부터 너무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된 얘기여가지고. 제가 1차 기자회견 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제가 아까 왜 처음에는 웃겼다 그랬냐면 처음에 왜 제가 저는 것 같다 뭐 약간 생각이 막 많은 것 같다 막 이랬거든요. 저 그거 아니에요 웃음 참는 거였어요. 와, 진짜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김영대 :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민희진 : 네. 그리고 내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이브에서 막 되게 대우를 많이 받은 *(웃음)* 사람들처럼 우리를 생각을 했었고, 이미 3일 동안 거짓말로 점철된 마녀 사냥을 당했고, 그 프레임. 그래서 제가 첫날, 처음에 다시 한 번 보세요.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와 내 인생이, 항상 컨셉이든 뭔가 일을 할 때 앨범이든... 이게 프레임을 항상 접목시켜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이런 도전을 즐겨왔지만 그런 걸 늘 해야 되는 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내 개인사에서까지 내가 이런 *(웃음)* 프레임 전복을 해야 되는 일이 있냐 기가 막히다 진짜.

오히려 한편으로는 웃기게도 내가 또라이라 그런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생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려고 일로 그걸 트레이닝을 했나? 프레임 전복을 계속 트레이닝 한 거야 20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대응할 수 있었나? 순발력이 있나? 원래 그리고 저는 좀 순발력이 있는 인간이거든요. 순발력으로 살아온 인생이가지고.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막 정리하고 막 뭐 하고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순간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P의 정리 능력 있잖아. J의 정리 능력과 다르거든요. 약간 그런 타입이라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 더 그랬지만, 도대체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와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요 상대가 대충 거짓말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0인 일을 꾸며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 그러니까 남이 미친 짓을 할 거라고 아예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있겠지. 근데 진짜 0에서 출발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웃음)* 미친 상황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다큐 맨날 찍겠다고. 저한테 다큐 찍자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방대한 일이고 이게 다큐가 한 편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시즌화돼야 되고, 드라마로 만들어줘도 될 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경솔하게 만들어지고 제가 유명해지고 이걸로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마음 1도 없고 피곤하지만, 기록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김영대 : 뭔가 남겨야 돼서?

민희진 : 네. 그리고 희대의 사건이라.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어떤. 왜냐면 또 제가 제작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기록을 남기는. 왜냐면 저는 다큐도 일종의... 아... 다큐가 얼마나 진실될까? 이걸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다큐 앞에서 막 다 카메라 돌아가고 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진실될까, 성격에 따라 다를 거거든요. 저 같은 인간은 뭐가 있어도 막 솔직하게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의식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고.

김영대 : 다큐도 어느 정도 플롯이 있죠.

민희진 : 저 근데 그게 싫거든요. 짜여진 다큐는 너무 싫고.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내가 CCTV를 달고 다니면서 내 생활을 촬영할 수도 없고, 그걸 이미 지나간 상황을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담고 어떻게 기획해야 최대한 가감 없이 사실대로 이걸 드러낼 수 있을까, 재미도 유지하면서.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사람은 안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제작자랑 이걸 찍어야 되고, 그리고 케이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 거기다가 이거 이 다큐를 만드는 데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돈의 목적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김영대 : 그 일에 어떤 의미나 목적을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민희진 : 네. 근데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일이어서-

김영대 : 아... 쉽지 않겠는데 *(웃음)*

민희진 : 네. 제가 그냥 이거를 뭐 제안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지금 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그냥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고 의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다. 왜 나한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 뭐...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인가 보다.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일만 하니까 흠잡을 게 없고 *(웃음)* 이 정도는 돼야 여기까지 싸울 수 있겠구나. 흠 잡을 게 없으니까 막 없는 데서 0에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거짓말을 막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오늘도 제가 무슨 엉뚱쌩뚱한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어쨌든 하이브에서 하는 루머래요.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의 루머? 완전 진짜 0에서 시작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에 대한 루머? 이런 거를 막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M으로 보통 그런 걸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 참... 제가 왜 이게 걱정이 됐냐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미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 인생에 참, 무슨 내가 미행 당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분이, 기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알았거든요.

김영대 : 어떻게요?

민희진 : 저한테 한참 가다가 "손님" 내리기 한... 몇 분 전에, 그러니까 도착지에 아주 가깝지는 않았던 어떤 지점에서 갑자기 "손님, 미행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네? 어떻게 아세요? 이랬더니 자기가 음... 어떤 차가 너무 딱 붙어서 따라와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길을 중간에 이상하게 틀어봤대요. 절대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경로로 틀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은 그럼 차선이 이렇게 뻥뻥 뚫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차 같으면. 자기 일부러 막히는 길로 들었는데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가씨 집 앞에서부터”, 저 아가씨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대 웃음)* 아가씨는 맞죠? *(웃음)* 근데 아가씨 집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붙어서 따라왔다. 그래서 제가 저,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일부러 제 행선지에서 안 내리고, 제 병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행선지에서 안 내리고 일부러 앞에서 더 한참 다른 데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 그냥 내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차종이 뭔가요? 제가 돌아보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분이 차종을 알려주셨고 아가씨가 내려서 저 사람이 따라내리면 100%다. 근데 자기는 그냥 100%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 차에서 따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치를 쓱 봐가지고 결국엔 제가 나중에는 쫓아가면서 너! 이렇게까지 했어요. *(웃음)*

김영대 : 너 그냥 이렇게 했어요? *(웃음)*

민희진 : 아니 눈이 딱 저를 막 슬금슬금. 너! 이렇게.

김영대 : 그런데 가요? *(웃음)*

민희진 : 아니 막 엄청 빠른 걸음으로. 제가 크록스 신고 있어서 뛸 수가 없었는데, 제가 막 따라가니까 막 저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 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앞에 가서 전화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러면서 따라갔거든요. *(손가락질하며)*

김영대 : 아 또 도망가니까

민희진 : 네 엄청 경보처럼 빠른 걸음으로. 어차피 제가 막 이렇게 잡을 건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었고, 차 번호도 알고 있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잡았어요.

김영대 : 잡았어요?

민희진 : 그러니까 어딘지는 확인했죠. 신고해서. 근데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 그냥 코미디 같기는 한데. 뭐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기는 했죠. 응? 그래? 웅.. 뭐 그러긴 했는데 뭐. 아무튼 별 희한한 웃기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죽을 운명이 아닌 것 같아가지구 *(웃음)*

5. 스릴러에도 항상 뭐, 따뜻함이 있죠

김영대 : 근데 이게 뭔가, 이 국면에서 뭔가 내가 억울한 거라든지, 해결될 거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욕망도 있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민희진 : 네 있죠

김영대 : 내가 그냥 원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가

민희진 : 네 하고싶죠

김영대 : 지금은 약간 이게 밸런스가

민희진 : 아니요. 완전히 깨져서

김영대 :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민희진 : 지금은 그냥 붕괴 상황이라 될 대로 되라. 일단은 한 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김영대 :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민희진 : 안타깝죠. 그리고 저는, 너무 이게 다큐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죽으라고 모두가 단합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정의와 뭐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기사로 저를 죽일 듯이 쓰면서 자기네들은 공정함을 위해 보도하는 거다 이런 양면성 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 아예 0에서부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이런... 매스미디어에서도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가끔 막 뭐라고 할 때 있거든요 엄청? 어차피 저는 기자 생활, 상황을 이런 걸 잘 모르고, 생리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사실. 뭐 그 불문율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데 기자를 대하는 어떤?

김영대 : 워낙 모르시기도 하고

민희진 : 관심도 없어요 *(웃음)*

김영대 : 네 관심도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민희진 : 그리고 알려줘도 그렇게 하지도 않구. 근데

김영대 : 그게 핵심인 것 같아

민희진 : 네 알려줘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난 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아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끔 얘기하면 저한테 뭐 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기자들이 가끔 이렇게 뒤통수를 칠 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기사 쓰시냐고, 저 도와주고 싶다고 했으면서. 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엉뚱생뚱하게 그런 관계를 악용해가지구 또 미끼화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김영대 : 뭔가 이번 일을 통해서-

민희진 : 세상을 배웠죠.

김영대 :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나 어떤 개별적인 것들에 대한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 어떤 그 돌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회의를 느끼고

민희진 : 아니 좆같음을 많이 느꼈는데. *(김영대 웃음)* 근데 제가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요 이 단어밖에 그걸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을 쓰는 거고, 적확한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고. 그 뭐 유튜브인데 어때요 또. 근데 아무튼-

김영대 : 되게 따뜻함의 어떤 컨셉이었는데 막 스릴러 같은 느낌이에요.

민희진 : 스릴러예요. 근데 *(웃음)* 근데 스릴러에도 항상 뭐 또 그 따뜻함이 있죠.

김영대 : 따뜻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웃음)* 아니

민희진 : 아니 있어요. 저는 좇같음도 겪었지만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너무 자기 이득없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김영대 : 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있죠. 노출이 되지 않을 뿐.

민희진 : 혹은 네 제가 언젠가는 공개하게 되겠지만, 되게 대단한 어떤 위로? 를 받았던 경우도 많고, 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되게 따뜻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제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뭔가 그 제가 되게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데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뉴진스가 나왔고, 아 이런 토대가, 이 사람은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제 모토가 좋아서 저를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제 플레이리스트를 다 들으시고 느꼈던 감정인 거예요. 저는 그게, 그게 너무 놀랍게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김영대 :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지? 라는 것도 되게 놀랍죠. 사실은

민희진 : 네! '저 여자는' ...

김영대 : 내가 고른 음악만으로

민희진 : 네. 전 세계의 음악을 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듣고,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뭘 추구하는지 느끼고.

김영대 :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민희진 : 저는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악 이게 아니라, 취향이 주는 힘? 그리고 그 취향에서 더 나아가서 취향에 공감대가 주는 교류.

김영대 :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진짜 취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실은 취향이 나의 취향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가 대부분은 착각인 경우가 많고 진짜 취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디어의 어떤 우리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미디어의 어떤 주입식의 교육을 우리는 그걸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저거를 내가 되게 좋아해. 내 취향이 저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쵸) 그건 그냥 그렇다고 말하니까 플레이리스트가 라디오에서 돌고 있으니까 나는 저 음악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애초에 그걸 선택한 게 아니거든.

민희진 : 그러니까 와 이게... 저는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너무 반갑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라떼는 이게 아니라 다 너네도 늙어봐 다 그렇게 생겨 *(웃음)*

김영대 :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화가 났어요

민희진 :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김영대 : 미리 화가 났거든, 아아

민희진 : 반대 급부의 얘기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김영대 : 아 반발을 자기가 상상을 하고 거기다가 화내는구나.

민희진 : 거기에 맞아. 미리 화를 내.

김영대 : 허~ 진짜 피곤한 사람이네

민희진 : 거기 쿠션을 먹여서 얘기하고, 미친 사람이야.

김영대 : 그러니까 미리 반발을 쟤한테 화를 내고 야! 쟤한테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해결책을 미리 또 생각을 하고 어.

민희진 : 그냥 하도 당해서. 하도, 하도 미움을 많이 받고 *(웃음)* 마녀 사냥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어우 씨발 이번에 또 언제 뭐라고 나를 또 지랄을 할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김영대 : 지랄을 안 했는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민희진 :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김영대 : 그런 게 없지 않잖아

민희진 : 근데 전 세계에 지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을 거잖아. 근데 그 한 명이 싫은 거야.

김영대 : 그건 또 무슨 하 칫 *(웃음)*

민희진 : 그래서 *(웃음)*

김영대 : 아니 되게 쿨한데, 그러면은

민희진 : 쿨한데 소심해

김영대 : 아 그러니까. 쿨한데 나... 그러니까 댓글은 신경 안 써.

민희진 : 네 맞아요.

김영대 : 근데 그 댓글에서 나를 욕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맞아요!) 엄청 짜증 나

민희진 : 네 맞아요 때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걸로 막 밤새도록 짜증 나고. 막 약간 그러니까 이게 대범한 척하지만 또 소심하고, 쪼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배포가 또 있고, 막 이게 저는 그리고 양극단을 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극단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저를 스스로 이렇게 중용,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되게 오래 살아온 인간이거든요.

김영대 : 밸런스를 뭘로 맞춰요?

민희진 : 제 몸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게 어떤 사람-

김영대 :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니까 왜 *(웃음)*

민희진 :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이 대부분은 이렇게 휘거든요? *(초승달 손짓)* 그러니까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은 다 한 방향으로 휘어 있는데 하 희진님은 골 아프게 휘어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약간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결 손짓)*. 그러니까 휘어 있는 걸 느끼면서 내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또 휘고 바로잡고 휘고 바로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일자지. 근데 가까이서 보면 더 골치 아픈 상황?

김영대 : 이렇게, 저기를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번 내가 내 무브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무브를 하는 거고

민희진 : 저는 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김영대 : 진짜 피곤한데 그러면

민희진 : 피곤한데, 또 의외로 사람들이 저한테 막 대범하게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냐 이러잖아요. 또 그런 걸 보면 또 의외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쳐낼 거는 그냥 발로 뻥뻥 차내죠. 뭐 이런 걸 생각해, 이렇게.

김영대 : 제 생각에는 대범함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소심할지언정,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뻔뻔하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 같아요.

민희진 : 저는 뻔뻔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뻔뻔함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고 그냥 이게 저를 올려치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뻔뻔은 저랑은 좀

김영대 : 뻔뻔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

민희진 : 그냥 대차요.

김영대 :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린, 내가 선택한

민희진 : 아니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뻔뻔은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그냥 직진인데 저는 책임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타고났어.

김영대 : 내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민희진 : 음... 그냥 저는 공의와 대의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대의가 뭘까, 여기서 모두를 위하는 길이 뭘까.

김영대 : 의미를 찾아요? 내 일에 대해서?

민희진 : 네 굉장히 찾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자연 법칙을 굉장히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김영대 : 순리?

민희진 : 순리. 그러니까 사필귀정이 사실 순리를 근간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김영대 : 정의는 승리한다? 뭐 이런 거? 그것까진 아니고?

민희진 : 정의는 승리한다라기보다는, 승리하죠. 결국에는 승리하지만

김영대 : 뭐든지 순리대로는 간다?

민희진 : 언제 승리할지 모르거든요.

김영대 : 그건 그렇죠.

민희진 : 근데 사람들이 코앞에서 승리 안 하면 졌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너무 멀리 승리하면 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승리해요.

김영대 : 그건 약간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의 섭리 같은 건데.

민희진 : 그것도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닥쳤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필요한 일이라서 이런 일을 겪는 거고 지금 필요한 일이라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뭐 각하 판결이 난 것도, 처음에는 아이 판사님이 조금 예외 좀 만들어주시지. 속으로는. 약간... 근데 그 판사님들도 그렇게 결정이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큐어 조항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전에 어쨌든, 이제 그분들은 우리 일만 생각해서 또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이렇게 준엄한 일이거든요 그 일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저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케이스가 없었으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한번. 왜냐면 판사도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컨텍스트에 대한 판단, 혹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 그냥 제가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김영대 : 어떤 예외를 예외, 예외적인 판단을 한번 기다려봤던 거네요?

민희진 :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과정을 겪는 이유가 있을거야.

김영대 : 나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민희진 : 당장은 유불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다시 나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돌릴 수 있지를 항상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그 반작용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 물론 이게 당장 이게 탁 전복되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자연의 순리의 법칙?

김영대 : 반대의 반대급부가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에 대한?

민희진 : 네, 그런 것들을 좀 믿는 편이라서 시간을 두고. 제가 원래 인내심이 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김영대 웃음)* 되게 성격이 급하고 빨리 막 보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아 이런 6개월, 장장 한 6개월 5~6개월 걸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 내 인내심을 기르라는 어떤 가혹한 어떤 테스트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6. 좀 그냥 멜로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김영대 : 근데 지금 이 산업에서 이 일을 하기에 너무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민희진 : 뭐가 불리해요?

김영대 : 뭔가 그런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희진 : 아이 그 장기는 아니죠. 저는 장기적으로 기대를 볼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빨리 쳐버릴거기는, 결정을 저는 되게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돌아왔냐면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영대 :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플레이리스트가 음악을-

민희진 : 아니 그전에 더 있었어

김영대 : 에? 거기까지는

민희진 : 제가 집에서 왜 재택근무 좋아하냐면,

김영대 : 아 그 얘기까지 가야돼?

민희진 : 아니 어 운전 그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세수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김영대 : 아 세수까지 갔어요?

민희진 : 저는 솔직히 그 일어나자마자부터 약간 노트북 펴는 스타일이거든요?

김영대 : *(웃음)*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어

민희진 : 저 가끔 저랑 새벽에도 얘기하지. 그래서 평론가님이 저한테 언제 자냐고. 저한테 언제자냐고 묻는 사람 되게 많긴 해요.

김영대 : 아니 잠을 안 자시는 것 같아요. 스케줄 문의할 때도 분명히 3시간 전에 깨 있었는데 날이 밝았는데도-

민희진 :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게 뭐라고 잠귀가 밝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있으면 되게 예민해서 바로바로 그리고 또 바로바로 답해야 돼. 왜 카톡에 1 못 떠 있는 거 못 보는 스타일? 일단 답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막 바로 봐야 되고 막. *(김영대 폰 확인)* 반응을 지금 보시나요?

김영대 : 아니요. 그냥 혹시 몇 명이 들어왔나 봤어요 한번.

민희진 : 몇 명이 보시나요?

김영대 : 한 일만 명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태프 : 만 이천 명이요

김영대 : 만 이천 명이요?

민희진 : 만 이천 명이면 많은 건가요?

김영대 :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해본 적은 없어 갖고.

스태프 : 구독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천 명이 안 돼요.

김영대 : 저는 지금 차마 댓글창을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 왜요? 저희가 뭐 심각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김영대 :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스태프 : 댓글 반응 그런 거 없고요. 영대님 기빨려 보인다고 (웃음)

김영대 : 아니아니아니

민희진 : 아니 원래 이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웃음)* 옛날에도, 옛날에도 그냥 이렇게 약간 살짝 매가리 없는 스타일 *(웃음)*

김영대 : 맥..! 매가리 갑자기. 네 그래서

민희진 : 근데 좀 예리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취향의 어떤 그-

김영대 : 취향이 진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취향이라는 거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들이 정해 놓은 거 중에서 골라서 내 그걸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본다는 거죠 사실.

민희진 : 그게, 그게 시대에 편리함이 준 형벌이에요.

김영대 : 그래서 우리가 라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민희진 : 어렸을 때는, 이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나 음악을 찾아듣고 내가 그리고 찾아서 들어야 됐거든. (그쵸) 막 이렇게 디깅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막 (맞아요) 구해야 됐고 막 수소문을 해야됐구.

김영대 : 그거 한 곡 들으려고 그렇죠. 너 누구 구한 사람 없어? 라고 물어봐서 거기서 진짜 복사하든지

민희진 : 저 첫눈 오는 날 친구들이랑, 우리 첫눈 오면 전화기가 없었던 시절에, 그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하니랑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하니가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고. 근데 딱 떠오른 게,

김영대 : 왜?

민희진 : 그냥 핸드폰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귀찮고 힘든 것도 있으니까. 맨날 다들 폰만 보고 있으니까. 우연히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떠올랐거든요. 친구들이랑, 야 우리 첫눈 오면 홍대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보는 거야. *(김영대 웃음)* 근데 각자의 첫눈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지) 누구는 살짝 진눈깨비가 첫눈이다 이럴 수 있고,

김영대 : 날리는 거를 우리가 첫눈이라고 할 거냐.

민희진 : 누구는 펑펑 내리는 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안 정했거든. (그치) 왜냐면 첫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언제 몇 시에 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때 되게 낭만이 있었거든요.

김영대 : 그렇죠 뭔가 나의 해석이 있고 들어가고.

민희진 : 네. 그러면서 사실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해져야 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스스로 해낼 게 많아지면서 굉장히 밀도가 쌓인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의 어떤 사고의 밀도. 그리고 행동의 밀도가 생기는데 지금은 까딱하면 배달해줘. 심지어 요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는 그 서비스도 있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웃음)*

김영대 :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수고스러운 만큼 맞바꾼 것 같아.

민희진 :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가 너무 편리한 세대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사고하는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세대이기도 해서. 저는 근데 각 세대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영대 : 절대.

민희진 : 네. 근데, 근데 각자의 장단이 있잖아. 각자의 장단이 있는데 그냥 지금 세대는 내가 이제 이런 걸 몰랐었을 때를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재미는 못 느끼네. 이런 거죠.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디깅했냐면 중학교 때 중1 때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옛날에 2년 전에도 얘기했었을걸요?

김영대 : 기억이 안 나죠.

민희진 : 그렇죠 늙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웃음)* 근데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는 어찌 보면 이게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 최대한 음악을 듣게 됐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라디오였거든요 유일하게.

김영대 : 라디오가 제일 대표적이죠.

민희진 : 그러면 그것도 또 근데 라디오도 취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김영대 : 뭐 듣느냐에 따라서 내 라디오 취향이 결정되죠.

민희진 :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들어야 또 취향을 찾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낮에 하는 팝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아침 10시에 하는 이제 세계 음악 어떤 프로그램이랑, 낮 2시에 그 시간대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막 심야에 하는 영화 음악.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막 좋아했는데,

거기에 예상치 못하게 제가 항상 공테이프를 넣어두고 있다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팍 눌러가지고 이제 기억하고. 근데 또 제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많죠) 가수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노래를 기억했다가.

근데 저는 막 그 어렸을 때 그걸 막 찾고 싶은 게 너무 심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음악이 주는 어떤, 그 음악이 주는 공간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어떤 굉장한 힘? 청각적인 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각이 주는 힘이 다 다른데 뭐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청각이 진짜 예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시각도 예민하지만 시각은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데, 청각이 주는 어떤 자극은 어쨌든 다른 자극보다 더 예민한, 이상하게 생각과 마음을 순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 나는 갑자기 이 환경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거야. 저는 그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공간인데 이 느낌이 이 음악을 틈으로써 갑자기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 그-

김영대 : 그쵸 이미 인류가 발견해낸 타임머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장소와 시간대를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사실은 음악을 통한 경험이어서.

민희진 : 그리고 그걸 어렸을 때 하는 게 극도의 아드레날린, 극도의 도파민, 극도의 뭔가 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그,

김영대 : 쾌감?

민희진 : 아니요, 그 쾌감 있잖아요. 그걸 뭐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웃음)* 기억도 안 나 지금.

김영대 : 어떠한 절정?

민희진 : 암튼 네. 그거를 딱 느낄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김영대 : 아 오르가즘을 얘기하구나.

민희진 : 네, 오르가즘을. 극도의 쾌감.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라. 왜냐면 저는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내 기분이 좋아지거든.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예민한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예민하니까 그 환경을 내가 원하는 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거에요.

김영대 : 그 음악이 주는 약간 그런 컴포트 하는,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기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럼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내 예민한 기분이 있으니까

민희진 : 저는 그 위로라는 그런 단어, 징그러운 단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김영대 웃음)*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걸 제가 좀 못 참는 성격이라.

김영대 : 어떤 단어로 바꾸겠어요 그러면? 나를 뭐 편안하게 해주고.

민희진 : 아니 그냥, 그냥 저는 항상 저는 살짝 제 음악 스타일, 좀 아시잖아요 제 취향을.

김영대 : 제가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민희진 : 와이프 같은 스타일 으하하하 *(웃음)*

김영대 : 그 뭐냐면 빠른 리듬이 빠른 음악에서조차 베드룸 팝의 느낌이 나요.

민희진 : 저는 멜로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약간. 근데 또 되게 펑키하고 뭔가 사이키델릭한데도 멜로한 느낌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그런 좀 멜랑콜리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영대 : 그게 사실 또 뉴진스 음악에도.

민희진 : 근데 그런 극도의 우울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밝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여튼 저는 나른함을 원래 좋아해요. 되게 무디한데 그런 되게 우울감이 있는 어떤 그런 블루무디가 아니라, 좀 그냥 멜로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김영대 : 단조에서 오는 슬픔보다 장조에서 오는 슬픔을 더?

민희진 : 네 그냥. 그리고 그 양극의 어떤 그 미묘한 밸런스를 딱 맞았었을 때 그 카타르시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웃음이 나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류의 저의 스타일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와! 미쳤다. 저는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밤에 그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요, 눈물이 막 나서 이렇게 슬퍼서가 아니라 가슴이 뛰고 너무 흥분되고 이 기분이.

김영대 : 감동을 하는 거죠.

민희진 : 근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울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느 때는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모든 비트 그리고 모든 연주하는 어떤 세션의 연주 포인트들이 다 나눠져서 들리는 거야. 그니까 너무 집중하니까. 들을 때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면서도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너무 귀찮고 하기 싫고 운전처럼. 남이 태워주면 좋고.

김영대 : 더 다른, 다른 영역 같아요.

민희진 :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김영대 :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음악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섬세하지 못해도

민희진 :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테크니션의 영역과 느끼는 걸 더 좋아하는 영역은 전혀 다른 거라서.

7.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 프란시스 레이, 아트북

민희진 : 아무튼 그래서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무슨 음악을 듣다가 너무-

김영대 : 뭐였어요? 처음으로 내 자아가 인식한.

민희진 : 그거는 저기.. 안토니우 까를루스 조빙. 그거였어요. 네. 'The Girl from Ipanema', 'Desafinado'. 뭐 이런. 발음이야 제가 브라질 사람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음악을 들어서 저는 처음에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의 그 가창, 목소리. 그리고 그 브라질리안이 말하는 영어의 어조.

김영대 : 영어, 네 그렇죠 포르투기스랑.

민희진 : 이게 너무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내 스타일 그냥. 완전 너무나도 내 스타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막 그,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 저한테는 이렇게 탁 꽂히는 음악 그리고 프란시스 레이. 제가 프란시스 레이를 왜 좋아하냐면 이제 아빠가, 저희 아빠도 좀 영화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집에 이제 LP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LP가 감성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LP가 실제로 듣는 용도였기 때문에-

김영대 : 음악을 들으려고 사는 거죠.

민희진 : 다들 LP가 있었어요.

김영대 : 판이라 그랬지. '판'

민희진 : 네. 감성 이게 아니라 그냥 CDP, 아니 저기 우리가 스트리밍 지금 사이트 그냥 듣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LP가 그냥 기본이었어. 근데 아빠가 또 오디오 좋아하셔가지고.

김영대 : 전축 *(웃음)*

민희진 : 되게 좋은 오디오들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아빠의 LP를 막 보다가 프란시스 레이의 음반에 완전 꽂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영화 음악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그 저기 작곡가인데. 근데 아무튼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거가 너무 좋았는데 우연히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이 시골이었어요? 근데 막 진짜 모두가 생각하는 시골. 왜 소가 있고, 앞에 마당이 이렇게 크게 있고, 사랑방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한옥.

김영대 : 전통 가옥 스타일로.

민희진 : 네. 근데 거기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이모가 막내 이모가, 이제 우리 엄마가 되게 다복해가지고 7남매인데 막내 이모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내 이모 방에서 제가 그 막내 이모가 읽던 책들, 막 이외수의 '들개'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 그걸 그냥 막 뽑아서 보는 거지.

김영대 : 사실 그때 있으니까 읽어요.

민희진 :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무슨 유식한 척 이게 아니라 그냥 어 보는거에요.

김영대 : 어 맞아요. 꽂혀 있는 거 읽는 거지.

민희진 :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들개'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수산,이라는 작가의 책. 이런 걸 그냥 막 읽었거든요.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모가 저한테 문어발을 구워준대. 저는 문어발을 거기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문어발이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모가 문어발을 구우러 아궁이로 간 거야. 진짜 실제 막 아궁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이모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되게 친하게 지냈지. 젊고 예쁜 이모였었으니까 되게 좋아했고.

근데 이모 방에서 눈이 막 펄펄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막 눈이 다 쌓여 있고. 근데 거기 이모의 그 음악 중에 프란시스 레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내가 듣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도 그게 기억이 너무 나요. 그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펄펄 내리는 눈을 보면서, 프란시스 레이 음악을 듣는데... 어 그 환상적이었던 어떤 그 모먼트가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악을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당시가 생각나고,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의 그런 인상적인 가수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조르지오 모로더라고 이제 네 되게,

김영대 : 조르지오 모로더, 우리 '손에 손잡고' 를 작곡하신 분이죠.

민희진 : 에헤헤 *(웃음)* 뭐 일렉의 왕. 뭐 그리고 이제

김영대 : 'Take My Breath Away' 도 작곡하셨고.

민희진 : 디스코의, 약간 이탈리안 디스코의 왕.

김영대 : 도나 썸머. 네 이탈로 디스코.

민희진 : 또 제가 이탈리아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프랑스 음악 좋아하고 이탈리아 음악 좋아하고 브라질리안 좋아하고.

김영대 :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고 유럽풍 음악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네)
지금은 많이 인기가 없지만.

민희진 : 네. 그리고 또 그런 음악들이 약간 자극적이야 (어 맞아요) 되게 멜랑콜리아인데 되게, 되게-

김영대 : 되게 감성을 직접적으로-

민희진 : 센서블하게 되게 자극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데, 근데 이제 모로더의 음반이 이제 아빠한테 있었어가지고 그 모로더가 또 뽕뽕거리잖아요. *(김영대 웃음)*

그러니까 오 막 너무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로더에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김영대 : 되게 평범하진 않았다 뭔가.

민희진 :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막 비범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꽂히는 음악이 그런 거였었으니까. 그냥 들었던 음악이 너무 그게. 사실 그 당시에도 친구들 가가지고 방학 끝나고 뭐 했냐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공감 안해주고 *(웃음)*

김영대 : 그렇죠 예예.

민희진 : "뭐래는 거야" *(웃음)*

김영대 :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민희진 : 네 저는요. 옛날에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 을 초등학교 때 너무 재밌게 봐서, 집에 옛날에 새로 읽는 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책을 또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책이 빽빽하게. 우리 집은 모든 공간이 다 책이었었어요. 그냥, 벽을,

김영대 : 아 환경이 되게 좋았다.

민희진 : 좋았다라기보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그냥 아빠가 책을 좋아해서 그냥 자기 책도 많이 꽂아놓으셨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자기들의 맞벌이에 대한 어떤 보상. 저랑 같이 못 있어주는 데 대한 보상으로 매일매일 새 책을 사다 주셨어요.

김영대 : 와!

민희진 : 아직도 기억나요.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책을 사다 주셨는데 장르가 너무 다양했거든요. 아동 소설만 사다 주신 게 아니라 뭐 별 희한한 책들도 많이 사다 주셨고, 그 어렸을 때 각 세계의 박물관을 아카이빙한 그 아트북이 있었거든요?

김영대 : 네 있어요. 있어요.

민희진 : 커다란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집에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미술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들라크루아도 저는 사실 제가 루브르에 가기 전에 (그렇죠 당연히) 응 어렸을 때, 그 사전에서 와 이거 내 스타일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봤고 파르고나르? 그 '그네'. 그 그림도 저는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 루브르 가가지고 본 것보다 어렸을 때 거기 사전에서 본 그 그림이 저한테 훨씬 더-

김영대 : 그 뭐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거 저도 루브르에서 봤는데,

민희진 : 와닿질 않아 *(웃음)*

김영대 : 와닿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있거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민희진 : 아니 근데 그 책은요, 아직도 집에 가서 내가 본가 가가지고 이렇게 펴보면요, 아직도 그 설레임이 남아 있어요. 그게 마치 원본인 것처럼.

김영대 : 어 되게 비슷하다 뭔가 그런 경험이.

민희진 : 그리고 천지창조를요, 제가 어떻게 느꼈었냐면, 문화일보가 어렸을 때? 그때 그 신문에서 그 복숭아색 종이 나오는 게 문화일보 맞죠?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김영대 : 그랬던 것 같아요.

민희진 : 창간했었을 때 복숭아 색종이가 있었어요. 경향신문이었나? 아니야 문화일보였던 것 같아. 살구색 신문이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아무튼 그 신문에서 1면에, 문화면 1면에 되게 크게 무슨 뉴스를 냈었냐면 '천지창조 복원하고 있다'

김영대 : 아, 시스틴 채플.

민희진 : 복원중, 네. 그 벽화 복원 중이라는데, 그 복원하는 그림을 천지창조의 그림을 시스틴 그 (소성당) 네. 그 이렇게 손 맞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1면에 크게 실렸는데 그게 그 복숭아빛 종이랑 묘하게 인쇄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김영대 : 뭔가 미감이 이렇게

민희진 : 아니 그냥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인쇄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 신문을 오려놓아서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스크랩이 너무 예뻐서. 근데 그 감동을, 왜냐면은 복원이라는 작업이 너무 그 당시에 숭고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도대체 옛날 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이거를 막.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였어요. 복원 과정에 대한 어떤, 이게 긴 얘기였거든요?

김영대 : 약간 믿을 수가 없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복원이 된다는 건지 저는 그것도.

민희진 : 그리고 그 복원된 상태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밀도감이 그 신문에서 인쇄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작 이태리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잉? 잉? *(웃음)* 엥? 이런.

김영대 :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이걸 너무 익숙하게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8. Earth, Wind & Fire와 라이브앨범

민희진 : 아무튼 이제 제가 그 모로더 얘기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억나는 이제 저한테 충격줬던 아티스트가 그 Earth, Wind & Fire였어요. 근데 처음엔 얼쓰윈드앤파이어인지

몰랐지. 그냥 음악을 듣고 'After the Love Has Gone' 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처음에 제목도 몰랐어. 근데 그 노래를 듣고 허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중학교 때.

김영대 : 그쵸. 최고죠 최고.

민희진 : 근데 그게 너무 멜로디가 꽂히는 멜로디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후킹되는 멜로디라 (맞아요) 그게 멜로디가 기억이 났거든. 근데 제목도 모르지, 가수도 모르지.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레코드샵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 앞에서 불렀어요.

김영대 : 그 후렴 부분을?

민희진 : 네 아하하하 *(웃음)*

김영대 : 이거 불렀어요? *(허밍)*

민희진 : 그거를, 가사도 막 정확히 중학생이 뭘 알아 (그렇지 그냥) 그리고 우리 때는 영어를 그렇게 막 필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알았어도 뭐 그렇게 막 발음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야. 뭔 단어인지도 몰라. 근데

김영대 :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막 써서도 하고 그러죠.

민희진 :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김영대 웃음)* 근데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코드샵 아저씨들이 다 대부분 헤비리스너였어요. (맞아요) 작은 레코드샵이었지만.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이 레코드샵들의 수준이 보였거든요. (어 그렇죠) 그 아저씨들의 어떤 디깅력, 그리고-

김영대 : 그리고 추천.

민희진 : 취향. 이게 보였거든. 레코드샵마다 그게 다 달랐어.

김영대 : 맞아요. 맞아요.

민희진 : 근데 내가 좀 신뢰하는 레코드 샵이 있었어요. 그 회사, 아니 학, 저기 우리 집 근처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아저씨 앞에서 챙피함을 무릅쓰고 거기 훅을 딱 불렀는데 그 아저씨가 기가 막히게 찾아준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처음 해 준, 하필이면 그 얼쓰윈드 파이어의 첫 음반이, 정규 음반이 아니라 라이브 음반을 줬어.

김영대 : 라이브 음반을?

민희진 : 벨페르 *(주 : 'Live in Velfarre')* 인가 하는, 그 일본의 라이브 클럽에서 했던. 저는 그때 일본의 라이브 클럽인지도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라이브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앨범이 많거든? (네 맞아요) 근데 거기 벨파르라는 어떤 호텔인가의 클럽에서 하는 라이브 실황을. 당시에 굉장히 그분이 좋게 느꼈으니까 그걸 줬겠죠? 근데 저는 원래는 라이브 앨범 안 좋아하거든요.

김영대 : 그렇죠. 스튜디오 버전, 오리지널을 좋아하지 오리지널을.

민희진 : 원래 그리고 또 되게 정갈한 걸 좋아해가지고 *(김영대 웃음)* 그리고 막 애들이 되게 되게 극혐하거든요?

김영대 : 원곡이랑 다르게 부르는 것도 싫잖아요.

민희진 : 네 어 왜 이렇게 약간 죄송하지만 깝치지? 약간 이런 느낌 *(웃음)* 나 저대로 듣고 싶은데 왜 저렇게 불러! 그 콘서트 가면 짜증 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김영대 웃음)* 근데 얼스윈드파이어는 하필이면 제가 처음 들었던 처음 접한 음반이 라이브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경험인 게, 이 라이브 앨범을 들으니까 정규 앨범을 들으니까 너무 밋밋해서 못 듣겠는거야.

김영대 : 그게 또 반대로 그래요. (네) 필 콜린스도 라이브 앨범 먼저 듣고 정규앨범 듣잖아요?

민희진 : 맞아요!

김영대 : 시리어슬리 라이브. *(주 : 'Serious Hits... Live!')*

민희진 : 그리고 그 저기 그 엄청 유명한 락밴드, 그 어... 사람 이름이 뭐죠? 아니 너무 많은데 너무 유명한 사람.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유명한데 기억이 안 나. 호텔 캘리포니아 부른 이글스. 이글스도 라이브를 들어야!

김영대 :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민희진 : 그냥 들으면 심심하다니까?

김영대 : 호텔 캘리포니아도 오리지널 들으면 쓰..

민희진 : 맞아 막 어 사람들이 하는 게 들려야! 이렇게 그 기타리프가 나올 때 '으아!' 이게 들려야 약간 전율이 오면서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냥 제가 그때 얼스윈드앤파이어에 완전 꽂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유명한. 사실은 처음에는 'After the Love Has Gone' 에 꽂혔지만 그 라이브 앨범을 듣다 보니까 다른 음악, 뭐 'Reasons' 이라는 곡이나,

김영대 : 리즌 너무 좋죠.

민희진 : 네.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곡들, 그 애드립이 미친 곡들에 꽂히게 되더라.

김영대 : 'That's the Way of the World'

민희진 : 아니야. 나는, 나는 그거보다, 하 웨이트 들어가는 곡인데 내가 추천했었던 곡이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 요새는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런 곡들. 그러니까 라이브 했었을 때 막 그 포텐이 막 터지고 그리고 꽂힌 포인트가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 그 꽂힌 포인트가 다른 어떤 그런 곡이 미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그랬었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카세트 테입을 또 샀어. 왜냐면 중학생 초등학생 돈이 없잖아.

그래서 저거 어렸을 때 꿈이요. 그 조빙을 카세트로 안 듣고 CD를 사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돈 생기면 이거 기필코 CD 산다.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 처음 그걸 CD를 사게 됐죠. 조빙 CD를. 근데 또 처음 산 거는 제일 유명한 'Getz/Gilberto' 가 아니라 또,

김영대 : 'Wave' 였나?

민희진 : 아니요. 웨이브도 아니었어요. 그 완전 인스트루멘탈 앨범이었어요. 이게 웃긴 게 왜냐면 왜 그걸 샀냐면, 일부러 조빙거를 사겠다고 큰 레코드샵에 갔다? 숙대 앞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제일 큰 데를 갔는데 하필이면 이 겟츠앤질베르토가 없는 거야. 있는 앨범이 조빙에 있는 앨범이 인스트루멘탈 앨범이었어요.

김영대 : 그럼 다른 데 가서 사면 되는데.

민희진 : 그러면 됐는데 차비도 아깝고 *(김영대 웃음)*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가기도 싫고. 그리고 또 처음이라는 설렘이 있었거든. 내 처음인데, 내가 여기 처음에 왔는데 무조건 뭐 하난 사야 돼. 그래서 아 이것도 운명이다 해가지고 인스트루멘탈을 사갔다? 와 근데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인연이 주는 어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모먼트가 주는, 나한테.

김영대 : 맞아요. 발견 같은 거.

민희진 : 그게 다 엄청난 추억이 돼서 이제 각각의 곡에 사연이 생기고 각각의 곡이 너무 귀한 거야. 이게 너무 귀해지고 그 당시가 생각나고 음악만 들어도 막 그 당시 냄새도 막 떠오르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서가지구.

9. 뉴진스 마당놀이, 버니즈 데이, 팀뉴진스의 애정

민희진 : 저는 사실 뉴진스 만들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경험을.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대는 너무 갖춰진 음악만 자꾸 듣게 하는 것 같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 환경에서 계속 비껴나가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취향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사람이라, "아~ 왜 이런 거 안 듣지? 이거 들어보면 너무 좋아할 텐데?" 약간 또 이제 그런 게 있었었고, 그래서 뭔가 치기어린 음악을 하는 팀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뉴진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상반된 조화가 사람을 달뜨게 하거든. 미치게 예쁜 애들이, 털털하게, 너무 멜로한 노래를 막 되게 풋풋하고 건강하게 불러. 그러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저는 그걸 알죠. 예를 들면 아다치 미츠루의 만화의 그 건강함이 주는 그 미친 매력이 있잖아요. 약간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만나는 데서 느껴지는 더 큰 감동.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었을 때 대중문화에 약간 그런 언밸런스한 매칭이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제 시장 분석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아이돌 음악을 듣게 만드는 게 파이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다.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아이돌에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케이팝 씬에서 제가 이름이 좀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일반 케이팝 팬들은 민희진이 만든다고 하면 일단은 본단 말이에요. 그럼 기본 형성은 돼 있어. *(웃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 약간 힙스터 기질이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 포섭하면 파이가 넓어지는 거잖아. 그게 시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산술적으로도 그 단순한 산수의 공식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파이가 넓어지지. 그렇게 돼야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남녀를 허물 수 있어요.
그러면 남녀 허물었지 세대 허물었지, 그리고 음악의 장르 허물지, 그러면 다 우리 편인데? 그러면서 저는 시장을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 팀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여자 팀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다.

김영대 : 어떤 미학적인 판단하고 대중에 대한 이해하고 사업적인 판단이 같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희진 :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버짓으로 내가 내 포텐을 어디까지 올려서 터뜨릴 수 있냐. 이거를 너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이라, 그래서 저는 버짓이 싸면 쌀수록 희열이 커지는 거야. *(웃음)*

김영대 : *(웃음)* 의외로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판단이?

민희진 : 네. 저는 좀 분명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질질 끌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듯이 밀당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니구. 되게 좀 분명해가지고. 왜냐면은 가뜩이나 피곤하게 사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그런 어떤 업무적인 결정 이런 것만이라도 굉장히 명쾌하고, 이렇게 되게 어 이게 뭐라 할까. 명쾌하고 빨랐으면 좋겠는 거야. 누군가를 헷갈리게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 제가 복잡한 인간이라 남들한테 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또 있어요.

(1:20:01 쳇됨;; 히진 재킷벗음;;)

김영대 : 근데 제가 그 희진님이 프로듀스한, 뉴진스죠 지금까지는. 뉴진스 음악들 들어보면 지금 대화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내가 선택한 취향이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있다.

민희진 : "내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웃음)*

김영대 : 그게 그거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희진 : 아니 그게, 내가 대단하거나 막 이래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어...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걸 보는 눈이나 듣는 귀가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거든. 아 이걸 싫어한다고? 이런 . 니가 몰라서 싫어하는 거지 이거 들으면 100% 좋아한다.

왜냐면 약간 저는 한편으로는 저를 되게 마이너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되게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대중적으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문익점 같은 거야. *(김영대 웃음)* 알리기만 하면 목화솜이 얼마나 좋은지 *(웃음)* 이거 다 알 수 있다.

김영대 : 아니 아까 그 'After the Love Has Gone' 을 만든 사람이 데이빗 포스터잖아요. 근데 데이빗 포스터가 셀린 디온하고 (네!!!) 조시 그로반을 발견했어요. 마이클 부블레도.

민희진 : 네 맞아요 엄청 대중적인.

김영대 : 사람들이 데이빗 포스터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프로듀서로서의 영민한 감각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면 파퓰러한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민희진 : 어 저랑 비슷한 얘기네요.

김영대 : 비슷한. 근데 되게 웃긴 게 데이빗 포스터도 굉장히 분명한 스타일이에요. 자기의 판단에 대해 되게 명쾌해요.

민희진 : 그래서 저는 오늘 버니즈 생일 파티, 원래 해주려고 여기 나온 건데

김영대 : 어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까

민희진 : 제가 뭐라고 파티를 해주겠냐마는 그래도 그냥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가 가끔 추천을 하는데, 이제 제가 추천 안 했었던 곡들 중에 같이 듣고 싶다. 왜냐면은 이게 각자 따로 듣는 거랑 다 같이 듣는 거랑은 또 다른 희열이 있잖아요.

김영대 : 음질 안 좋은 스피커로 들어도 *(민희진 웃음)*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들을 때.

민희진 : 다 같이 떼로 듣는, 그 음감회 같은 거 저 미치게 좋아하거든요? *(김영대 웃음)* 근데 사실 그래서 원래 뉴진스의 첫 번째 쇼케이스, 원래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원래 기획은, 이제 우리 어도어 몇몇 직원들은 알기도 하는데, 원래 기획 뭐였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기는 했는데, 성수동 같은 데 조금 작은 그러니까 크지만 작은 어떤 왜 그런 저기 대림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데 빌려서 250이랑 프랭크가 앞에서 디제잉하고.

김영대 : 어 재밌었겠다.

민희진 : 사전에 미리 이렇게 판 깔아서 그냥 그냥 되게 raw하게. 얘네들이 그냥, 아니 뭐, 비하로 얘네들이라고 하는 게 *(김영대 웃음)* 그냥 원래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얘네들이라고 하는 거고 저보다 어리고. *(웃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관객들이 어떻게 앉냐면 그냥 왜 씨름 보듯이. 씨름판에서 씨름 보듯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앉는 거지. NBA 농구 보듯이. 씨름 이렇게 보나? 약간 NBA 왜 앞에 VIP석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김영대 : 예. 앞에 그냥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그냥 보는 거지

민희진 : 예 맞아요. 같은 레벨에서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모랫바닥에 앉혀가지고. 그리고-

김영대 : 마당 놀이하듯이 *(웃음)*

민희진 : 맞아요 마당 놀이하듯이. 그래서 내가 씨름을 떠올린 거예요. 씨름이 아니라 마당 놀이하듯이 *(웃음)*

김영대 : 마당놀이였어. 마당놀이 어.

민희진 :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들 가운데서,

김영대 : 야근데 그거 기가 막혔겠는데?

민희진 : 이게 공연을, 왜냐하면 가까이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 내가 느낄 때 뉴진스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더 느껴져.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가까이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클럽 분위기처럼 이제 우리가 나눠준 옷을, 이제 예를 들면 구찌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지. 그럼 그냥 그때 오면 그냥 그거 하나씩 뒤집어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같이 푸대자루 뒤집어쓰듯이 다 똑같이 이렇게 옷 입고 있고,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 가운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관객이 앉아 있으면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공연을 되게 가까운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니즈들이랑 얘기도 하고, 중간에 그냥 멋대로 막 하고. 그걸 신인인데 처음 하는 애들한테 야 우리 이런 공연하면 좋을 텐데 근데 막.

김영대 : 뉴진스 한마당이네 완전히.

민희진 :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보안이 어떻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안전사고 나고 안 된다. 그리고 많이 못 들어온다. 그럼 팬들이 또 성화가 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제가 갑자기 예를 들면, 헨즈나 모데시 같은 어떤 클럽에, 제가 옛날에 뷔한테 제안했었던 제안이긴 했는데, (아 진짜요) 클럽에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갑자기 되게 스페셜 게스트로 갑자기 나와서 라이브하고 약간 하는 거야.

김영대 : 어우 그런데서 슬로우댄싱 부르면 오.

민희진 : 그러면 야 멋있지 않을까? 어 그랬는데 뷔가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허~~~" 어허허허 *(웃음)*

김영대 :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니까.

민희진 : 근데 뉴진스 너무 좋아할 거야. 우리 애들은요, "허억! 너무!" 미성년자라서 약간 그게 좀 있는 거지, 우리 애들은 무조건 막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막 제가 애들 앞에서 막 이런 뻘소리를 막 했었을 때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었다, 개 뻘소리를 많이 했죠. 나 원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나중에 하자! 우리끼리.

김영대 : 되게 뭔가 내가 막 그리고 있는 상상의 픽처들을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는 스타일 같아요.

민희진 : 네. 많이 전달하고 그걸 그, 그리고 또

김영대 : 디벨로핑되는 과정 자체를.

민희진 : 맞아요! 그리고 뉴진스는 그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무슨 왜 옛날 얘기에 환장하는 어린애들처럼 *(김영대 웃음)* 그거에 막 미치게 홀릭되거든요 얘네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또 너무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기들 아이디어도 얻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뭔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재미가 있죠. 그런 재미가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애들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경험한 게 작기 때문에 구현하는 데에 그 상상력이 지금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김영대 : 그렇죠 아무래도.

민희진 : 그러면 내가 그걸 부스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미친 짓을 해야 애들두 달려들 수 있거든. 왜냐하면 다 같이 빨가벗으면은 안 챙피한데, 이게... 나보고 벗으라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벗었는데 나만? 이러면 아무도 안 벗잖아.

김영대 : 진짜 벗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참고로.

민희진 :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벗고 막 하면 이제 애들이 어? 해도 되나 봐! 왜, 우리 사장도 저렇게 하는데 해도 되지. 이런 게 사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배움이기도 하구.

김영대 : 되게 흥미로운 이그잼플이네요.

민희진 : 그리고 그래야 애들도 재밌지. 그리고 우리 애들 나같이 되게 즉흥적이고 좀 그런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규칙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리기 때문에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많구, 연예인 하려면 끼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끼쟁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던지면 우와!! 막 이래요 우리 애들은. 하아아아! 언제 해요? 막 그거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왜, 아빠가 한번 쉬는 날, 야 우리 테레비 보다가 에버랜드 한번 가자, 막 신나서 얘기했는데 애들은 그걸 다 기억해가지구 *(웃음)*

김영대 : 피의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민희진 :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아니 에버랜드 가자고 했잖아요~ 언제 가" *(웃음)* 그래서 약간 그런 것처럼.

김영대 : 케이팝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분명히 재능 있는 애들을, 재능들을 찾아서 키워.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임프로바이즈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민희진 : 음, 그쵸. 왜냐면은 트레이닝 과정을 모르셔서 그런데, 트레이닝 과정을 알면 그게 키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트레이닝 과정부터 같이 하고 싶었던 거고 왜냐하면 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믿어주고 있어. 네가 실수해도 우리는 그때 실수를 지적할 순 있지? 그렇지만 너를 막 면박주거나 너의 기를 죽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또 잘못하면 정확하게 잘못했으니까 사과해라는 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훈육이라는 말을 쓴 거고. 왜냐면 애기들일 때 만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키워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트레이닝의 어떤 그 사상? 그리고 트레이닝의 어떤 관념, 개념, 그리고 신념, 어 그... 굉장히, 대의를 위한 실제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신념이 진짜.

김영대 :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민희진 :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덜 답답해. 왜냐면 어차피 어리기 때문에 지 혼자 다 못하거든. (그렇죠) 근데 남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다 안 되면 답답하거든.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덜 답답하게 하려면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지금 싫지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거를 그때그때 알려주면 별거 아닌 걸로 싹 풀려요. 원래 인간은 그래.

김영대 : 자식 교육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민희진 : 전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뭐 자식이나 직원이나 뭐 애들이나 저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냥. 이게 물론 이제 조금 키운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왜 케이팝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항상, 소비자들의 태도도 좀 아전인수의 경향이 있거든요.

김영대 : 예를 들면?

민희진 : 어느 때는 인형이라고 했다가, 어느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나서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나서지 말라고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잔소리하는 사람들인데,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들 시누이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일관성 있게 사실은 조금 대해주면은 연예인들도 아티스트들도 그렇게 막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때는 막 이러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저러라고 했다가 막 이러니까. 근데 또 어린 나이에 그런 이랬다 저랬다의 환경을 겪으면, 일종의 부모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가면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이러면 애가 막 미치잖아요.

김영대 : 일관성이 중요하긴 하죠.

민희진 : 네. 근데 매사 일관적일 수는 없지만 일관성이 있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중심, 은 이게 지켜줘야 저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이제 사람이 항상 매번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신뢰가 깨지는 일들이 그때그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는 팀웍이 있는, 팀 플레이를 하는 일종의 어떤 집단 공동체고 그 안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팀 플레이를 가장 잘하려면, 이게 선의의 의리를 잘 지키려면 우리가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혹은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친구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게 화가 났을 때 말을 해야 풀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데 근데 둘이 다 화가 나. 그럼 둘이 어떻게 풀어? 그런 해법을 얘네들이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찾아야 돼를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 찾게 해줄 순 없어. 직접 찾아야 돼.
근데 얘들아, 찾아야 돼. 이게 찾아야 되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안 찾고 서로 의가 상하면서 오래 가면은 그 이혼 직전의 부부처럼 돼요. *(김영대 웃음)* 서로 풀지 않고 너무 오래 가는 거야.

김영대 : 그러니까 이거는 니가 찾아내야 되고 그거는 네가 해내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심어준다라는 거죠.

민희진 :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당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할 때 그러니까 계속 서로 얘기해. 얘기해서 그걸 찾아내.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사람이 정이 생기잖아요. 싸워도 미운 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되게 나중에 땅을 굳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저는 막 작위적인 어떤 행동을 원래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제가 이런 데 나왔다고 갑자기 집에서는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막 이런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구. 그러니까 집에서 이랬다고 여기서도 이런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는 비슷한 스탠스여야 되고, 내가 상사를 대할 때나 내가 후배를 대할 때나 내가 연예인을 대할 때나 직원을 대할 때나 저는 대체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하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가혹하게 하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아이스브레이킹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별게 아니다 이게 다.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대하는 편인데 이제 그게 애들한테도 저는 이제 그렇게 대하지만, 저는 버니즈를 대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게 똑같아요. 그냥 후진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솔직하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얘기해서 풀자. 나는 심지어 얼마나 오그라드는 걸 싫어하냐면 그런 '위-로', 뭐 '힐링'. 막 우악 막 끄악!

김영대 : 나 오프닝에 힐링이라고 많이 들어갔는데.

민희진 : 그리고 막 '따뜻함' 막 이런 *(웃음)*

김영대 : 나 따뜻한 토크라고 그랬는데 오늘.

민희진 : 그리고 심지어 '진솔' 은 저한테 조금 중간에 있는 단어?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된다. *(웃음)*

김영대 : 오늘 진솔한 토크를 해볼게요.

민희진 : 저는 원래 진솔한 사람인데도 그냥 스타일이 오그라드는 걸 너무 못 견뎌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막 사랑한다는 말을

원래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이런 타입인데, 우리 애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가지구. 애들 때문에 내가 하게 된다니깐요? 이제는 좀 안 쪽팔려요. 아니 막 심지어 안 그러던 민지까지 사랑한다고 하니까 *(웃음)* 민지가 내 성격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약간 이렇게 오그라드는 말 잘 못하고 이렇게 탁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걔가? 근데 걔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하도 막 다니 하니 막 이런 애들이 막.

김영대 : 점점 되게 유해지는 느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민희진 : 그... 미친듯이 사랑한다고 막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별 얘기가 아니구나 *(웃음)* 막 이렇게 서로 그런 식으로 또 동화도 되는 거죠. 이게 아이스브레이킹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물드는 거거든. 그래서 막 미안한 게 옛날에는 다니가 뜬금없이 막 연락해가지고 "대표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 나 너무 말하고 싶은데...

김영대 : 뭐라고 해야 될지 이걸 답을.

민희진 : 이거를 하 나 너무 따뜻하게 말하고 싶지만... 이게 내 평소 성향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막 안 되고 막 어떡하지. 처음에는 되게 주저해서 막 다른, 다른 온기가 있는 말이 뭐가 있지? 막 이런 *(웃음)* 근데 지금은 너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변화된 저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요.

김영대 : 아무튼 애 키우는 부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왠지? 예.

민희진 : 어쩔 수 없죠. 이게 왜냐하면 뉴진스는 저한테 굉장히 각별한 팀이에요. 이게 무슨... 왜냐면 왜 각별하냐면 사명이 있는 팀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업계에서 한번 요런 시도를 해서 요렇게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지금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무의하다고 생각하는 거, 를. 야 이거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일단 잘 된 다음에 그거를 파훼해야 돼. 그걸 없애야 돼. 1등이 1등을 없애야 돼. 이거 의미 없다! 라고 얘기해야 사람들이 들어주거든.

김영대 : 이 얘기 잠깐 쉬었다 갈게요.

민희진 : 저 음악 좀 들려드리면 안돼요?

김영대 : 쉬었다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음악도 듣고 갖고 오셔서 음악도 듣고

민희진 : 우리 반응도 좀 봐요.

김영대 : 반응도 좀 보고 민희진, 나 좋아하는 영화도 알고 싶고 뭐 다 알고 싶어요. 그리고 뉴진스의 연대기를 그냥 한 곡 한 곡씩 제가 따라가면서 (좋아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볼게요. (좋아요) 저희 잠시 쉬고 올게요. 여러분 가지 마시고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1부 끝 [인터미션] 1:49:28 2부 시작

10. 플리 : 장 자크 페리, 비트매니아, 브루노 니콜라이

김영대 : 민희진 — *(영상문제)*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 *(웃음)* 저는 디톡스지만 다른 분들은

김영대 : 다른 사람들은 뭔가 톡식되는 느낌.

민희진 : 눈 밑에 까만 그림자 아하하하 *(웃음)*

김영대 :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잠깐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김영대 개털리는 중' *(민희진 웃음)* 'INFP가 ENTP한테 박살나는 중'

민희진 : 이거는 사실 오늘 그냥 수다 떨자고 만난 거라,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런 사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김영대 : 그렇죠 일상적인 모습. 오늘 그게 사실은 제-

민희진 : 저 원래는 컨셉 아니고 저 원래 모든 데 나가도 다 일상적인데, 근데 그래도 또 그런 이제 더 편한 거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만 이제 봤으면 좋겠어서. 네. 뭐 그런 막 자극적인 얘기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김영대 : 여태까지 한 이야기 중에 '아니'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셨대요.

민희진 : 습관이에요. 습관.

김영대 : 제가 뭐든지 뭐라고 말하면 다 아니라 그런다고.

민희진 : 아니야 그게! *(김영대 웃음)*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니가 긍정도 있어. 그쵸 이게 추임새야 추임새. 그쵸 다들 아실 거에요.

김영대 : 그 사투리에도 그거 있잖아 아니 그리고서 그냥 말하는 거.

민희진 : 아 맞아 맞아 맞아

김영대 : 그래서 아무튼 공감을 나름 하고 있다. 제 차도 갖다 마시셨어요. 근데 *(민희진 웃음)* 그래서 아까 열심히 지금 우리가 사운드 스피커를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대로 무슨 약간 카페 분위기 느낌 나는.

민희진 : 아니 저 원래 음악을 같이 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막 저는 이렇게 디제잉 이런 게 조금 음악 리스너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가 있냐면, 너무 그 퍼포먼스에 좀 집중하는 느낌? 디제잉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음악을 어떻게 믹스를 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이게 또 음악과 음악의 연결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것도 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다들? 그 근데 그거보다 디제잉 하는 사람들의 퍼포밍이 어떠냐 막, 이런 거 보거나.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DJ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속 무슨 콘서트를 보듯이 하는 즐기는 디제잉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악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 듣고 앉아서 듣고 그냥 아무 데나 얘기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한 건데, 다 한 방향을 보고 음악을 트는 사람을 보고 그거를 하는 게, 몰라요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믹스해서 이렇게 트는데 그런 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믹스만 잘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소극장 같은 데나 음감실 같은 데서.

김영대 : 음악 감상할 때 많이 하던 거잖아요 동호회, 동호회에서 하던거.

민희진 : 네에에에. 그냥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그냥 게릴라로 막 틀어주는 거지. 그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음악은, 전자음악의 아버지? 같은 분의. 저를 어렸을 때 너무 매료시켰던 그 Jean-Jacques Perrey이라는 프랑스의.

김영대 : 네 맞습니다.

민희진 : 그 moog. 그 신디사이저 저는 그 어떤 연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좋아요. 좋아해요. 근데 그 무그 스타일의 어떤 사운드들? 의 아버지이자 그리고 지금 전자음악의 사실 시초죠. 근데 지금 들어도 이분이 막 20년대생 이럴걸요? 26년생인가 막 이럴 거예요.

김영대 : 그렇죠. EDM이라고 불리기 이전의 시대에 일렉트로니카.

민희진 :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완전 레트로 시대의 퓨처리스틱한 어떤 바이브를 되게 풍기셨던 분이시고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고 좋은 분인데, 이제 이 분의 음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꼭 버니즈랑 같이 듣고 싶다.

김영대 : 진짜요. 들어볼까요? 제목을 소개를 해 주시죠.

민희진 : 아 이게 또 제목이 붙어라가지고 그냥 알아서 찾아서 들으세요.

김영대 : 소스와

민희진 : 아니 *(웃음)*

김영대 : 스소와 아니에요 스소와?

민희진 : 아니 또 또 제목이 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음악이랑 딱 어울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Jean-Jacques Perrey - Indicatif Spatial (Spatial Jingle)

https://youtu.be/jJNDmRVMi1E?si=-3fsUDyTHQrxqm8j

민희진 : 크게 들으셔야 돼요.

민희진 : 초반부가 살짝 작게 들렸었다고 하는데 아쉽네요? 아 이것도 다시 또 나오네. 이게 초반부인데. 저는, 이거 깔고 하죠? *(웃음)* 아니 저는

김영대 : 스패셜, 스패셜

민희진 : 인디, 인디, 인디케이티프? 예. 인디케이티프 스패셜.

김영대 : 이게 우주, 우주적, 무슨 그런 뜻이에요? 무슨 징글 그러니까,

민희진 : 그러니까 약간 기호 같은? 그러니까 뭔가 공간의 어떤 부호? 약간 이런, 이런 개념의 뜻이더라구요.

김영대 : 공간적인? 그렇죠 인디케이티프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민희진 : 그 뒤게 뒤께, 스패셜 같은 발음이에요. 스패티얼 이렇게.

김영대 : 네네 불어니까 이게.

민희진 :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불어는 잉 이렇게 안 하고 앙 이렇게 할걸요. *(웃음)* 앙디피 이렇게? *(웃음)* 아무튼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뭔가 이렇게 대중분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런 류의 음악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공유하게 돼서 아까 이렇게 되게 짜릿했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보나. *(웃음)*

그러니까 이런 사건, 이런 거지 같은 사건이 그래도 주는 미덕이 있어요. *(김영대 웃음)*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도 못했을 거고, 약간 저에 대한 오해도 많고 막 그런 저를 되게 음해하는 분들이 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있었어요 다.

김영대 : 있었죠. 유명했죠.

민희진 : 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냥 오히려 그냥 제 이상한 성격이 다 드러나서.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하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냥 이게 다 솔직하게 대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악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제가 되게 감개무량하다,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에헤헤헤 *(웃음)* 너무 많이 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예.

김영대 : 아니 난 좋은데요?

민희진 : 이거 이게 저는 어떤 장르를 따지거나 막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꽂히는 어떤 스타일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버니즈들은 제가 보사노바를 되게

좋아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사노바를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 무슨 과제를 할 때마다 다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들어서 우리 교수님이 도는... *(웃음)* 이 음악에 미쳤니? 약간. *(웃음)* 근데 보사노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사노바가 약간 장르적 어떤 특이점을, 모든 장르에 특이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장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김영대 : 템플릿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민희진 : 특징이 있고. 근데 또 싸구려로 연주하면 한없이 싸구려, 이렇게 미사리 스타일이 되는데, 그게 아닌 굉장히 조금...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밀도 있는 어떤 연주나 어떤 스타일을 들으면 굉장히 그그그 고급스러운 미학의 절정?

김영대 : 굉장히 세련된 걸 추구한 음악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뉴웨이브라는 뜻이었고

민희진 : 네. 완전 끝이죠. 완전히 끝이 되는 음악이라서. 근데 이게 극과 극, 이 될 수도 있는 음악이라 굉장히 단조롭고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 반면에 굉장히 밀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약간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꽂혔던 가수들이 약간 그런 가수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뮤지션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굉장히 되게 딥한 그런 음악을 듣다가, 대학교 때인가 비트매니아? 막 이런 거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게임에 문외한이거든요. 게임에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이야 하고 보내줬던 음악인데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지금도 좋아하는 음악이거든요?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김영대 : 제목 없이 한번 들어봐야겠다.

민희진 : 네. 이게 제목이 이것도 또 불어예요. 제목이 불언데,

김영대 : 불어예요? 포르투기스 아니고?

민희진 : 네 불어에요.

---

beatmania YebisuMIX - La Bossanova de Fabienne

https://youtu.be/vRjKrL1ijeM?si=mRMKtKHe19lFkLp0

민희진 : 이거 아세요?

김영대 : 이거 제가 게임 했었거든요.

민희진 : 전 안 했는데.

김영대 : 이거 게임했었던 기억나요. 일본 가수이지 않나요?

민희진 : 일본 가수일 거예요. 그리고 리믹스한 버전.

김영대 : 일본 가수고, 와... 이 노래를 내가 오랜만에 듣는다.

민희진 : 저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20년만에.

김영대 : 와, 게임으로 했던 음악인데.

민희진 : 근데 듣다 보니까 불어랑 포르틱이랑 섞인 것 같아요. 이게 포어도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전부 불언가?

김영대 :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포르투기스도 할 줄 아는구나.

민희진 : 아니 할 줄 몰라도 하도 많이 들어가서 주서들은 *(웃음)*

김영대 : 아, 좋다.

민희진 : 오랜만에 들으니까 엄청 좋으시죠.

김영대 : 너무 오랜만인데.

민희진 : 저도 이게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김영대 : 뉴진스가 들리는 것 같은데.

민희진 : 갑자기 생각나서 어 그거 너무 듣고 싶다 해가지고 막 어떻게 찾았냐면,

김영대 :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이거를?

민희진 : 비트매니아로 막 찾았어. 아하하하 *(웃음)*

김영대 : 비트매니아 *(웃음)* 사운드트랙 이렇게?

민희진 : 비트매니아와 보사노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찾았죠. *(웃음)*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되게 좋네요.

김영대 : 어 너무 좋다. 또 있어요?

민희진 : 그리고 예 있어요. 또 있죠. 저 틀려면은 오늘 끝도 없이 틀 수 있는데 근데 뭐.

김영대 : 그것도 다 거기에 이제 어떤 스토리를 또 담아야 하니까.

민희진 : 네 작작하긴 할 거예요. *(웃음)* 근데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탈로 디스코나 아니면 이탈리안 OST들. 60~70년대. 저는 기본적으로 오륙칠십년대에 사조를 좋아해요. 그 당시의 음악 사조, 미술 사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최고의 해라고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해라고 생각하는 해가 69년이거든요?

김영대 : 사랑의 여름 때군요.

민희진 : 하하 *(웃음)* 저기 겟츠앤질베르토가 발매됐던 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보사노바, 쿨재즈 , 이런 약간 비주류 혹은 (사이키델릭?)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마이너하다고 할 수 있는 장르가 실제로 빌보드에서도 굉장히 상위 차트에 오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대중 문화가 되게 풍성했던 시기.

김영대 : 마지막으로 낭만적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게 69년이에요.

민희진 : 그런 것 같아요.

김영대 : 70년대부터는 이제 다 보수화가 돼.

민희진 :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음악은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젯셋족들이 듣는 음악 있죠. 약간 라운지틱한, 나른한 음악을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김영대 : 아, 맞아. 베드룸팝하고

민희진 : 근데 베드룸 팝이라고 지금 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김영대 : 규정된 거 말고.

민희진 : 그렇죠. 제가 왜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음악의 그런 장르적 특징들이 사실 지금 베드룸 팝에 조금 가볍게 들어가 있거든요 다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가벼운 걸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김영대 웃음)*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조금 그런 혼란이 살짝 있기는 해서 그 표현을 쓰는 거는 조금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탈리안, 그런 약간 무디한 어떤 재즈 베이스의 라운지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 음악 중에 제가 이제 같이 듣고 싶은?

이거는 이제 제 추천곡에도 있는데, 그... 누가 이제 저기 제 추천곡을 모으셔가지구 스포티파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셨어요. 근데 진짜 거~의! 똑같게 올리시기는 했더라고요? 한두 곡 정도가 살짝 다른데, 쉬운 곡이 틀려 있어가지고, 어? 이거 내가 이거, 내가 고치면 안 되나? 약간 *(웃음)* 근데 아무튼 여기에도 있는 곡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Bruno Nicolai - Allora il treno

https://youtu.be/TEoKSjNZLd4?si=_3sypoRi44afJqkh

민희진 : 브루노 니콜라이라고 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의 곡인데. 요즘 드라마가 있어요 되게. OST가 베이스니까.

민희진 : 기분이 엄청 묘한 게,

김영대 : 날아오를 것 같아.

민희진 : 그렇죠. 제가 막 사무실에서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막 틀어 놓으면은, 우리 직원들 중에 이제 저랑 친한 애들이 어 그 당시에 이사, 부장, 뭐 이랬었을 때 하여튼 뭐, 이사님이 트는 음악 들으면 막 우주로 날아갈 것 같다고 *(웃음)*

김영대 : 그렇죠. 보컬도 그렇고 브루노 니콜라이 예. 알로라일 트라노?

민희진 : 네, 이게,

김영대 : 70년대 초? 70년대 음악인데.

민희진 : 예... 70년대 음악인데, 근데 이제 이런 음악들이 이게 뭐, 약간 이지 템포라는 어떤 컴플레이션 음반으로 이제 묶여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요 시대에 유명했었던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있거든요. 엔리오 모리꼬네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때, 그때 정서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영대 : 아 그렇구나 뭔지 알겠다.

민희진 : 네.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당시가 또 이탈리아 영화의 황금기고, 저도 그리고 되게 B무비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B급 영화를 또 어렸을 때 막 약간 오컬트도 좋아하고 뭐... 약간 그런 좀 멜랑콜리한 영화들을 좀 좋아했어가주구, 이런 음악들이 사실 저를 키운 거거든요 다. 저를 정말 되게 양육한 음악이다. 제 정서와, 이제 어떤 제 어떤 뭔가 그 창작 욕구?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만들게 했던 음악? 이런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음악에서 주는 어떤 정서, 그런 어떤 감수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다.

김영대 : 이게 사실 영감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11. 버니즈캠프 인 도쿄돔 2024

민희진 : 이게 재해석되고 나화되는, 내체화되는. 사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항상 이제 이번에도 우리 도쿄돔 때 솔로 무대가 저는 한 명 한 명이 진짜 되게 탁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다른 사람의 곡을 어떻게

체화해서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어떤 다른 감정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무대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푸른 산호초'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도 질문을 막 하시거든요?

김영대 : 센세이션이었으니까요.

민희진 :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 되게 예상하고 하긴 했었죠. *(김영대 웃음)* 왜냐면 그래도 음악을 조금 좋아하고 이랬으면 아는 그 음악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받는다는 게 내가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마츠다 세이코가 당시에 줬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상당히 되게 독특했거든요. 되게 고유했고. 물론 유행이 됐지만 그래도 다 마츠다 세이코 같지 않았잖아요. 고유한 어떤 그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뿜어냈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아이돌이라고 칭해져서 얘기가 되는 어떤 캐릭터라이즈 된 대중가수의 모습 있죠. 아이돌이라는. 그 모습에 되게, 되게 가까운 느낌 같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굳이 이렇게 선별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돌의 굉장히 가깝게 있는 캐릭터? 그래서 약간 이제 지금 시대에 저런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어떤 무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소박하면서 그 애조가 있고. 그리고 약간 뭔가 그 개인의 매력을 되게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곡과 스타일과 음악이 없거든요. 사실 별로?

김영대 : 장식도 사실 많이 없고, 굉장히 원초적이죠 어찌보면.

민희진 : 맞아요. 지금 음악들은 대부분 이제 보여지는 거에 특화돼 있는 어떤, 다채롭게? 그리고 되게 멀티플 하면서 복잡하게?

김영대 : 구성의 미학이죠. 예.

민희진 :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와중에 실제로 음악이 솔로가 주는 어떤 힘을, 근데 그게 약간 지루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을 막 극대화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고런 걸 좀 해보고 싶었고. 그게 방송 무대로 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게 꼭 도쿄돔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대 : 왜요?

민희진 :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공연장의 음향 시스템과 도쿄돔 너무 달라요.

김영대 : 아 그래요?

민희진 : 예. 왜 도쿄돔 야구할 때 그 타자 땅 소리 들으려고 거기 야구 보러 간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소리를 모아주는 어떤 설계, 그리고 그 돔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시아가 도쿄돔은 너무 제일 부러웠던 건데 안 좋은 시야가 없어요. 제가 도쿄돔 공연을 하면서 모든 시야에 가서 다 봤거든요? 심지어 시야제한석까지. 저는 시야제한석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풀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두 여기 와서 이 홀대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돈을 벌려면은 사실 좌석을 막 더 붙이고 어쩌고 해서 막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신경 써서 진짜 그... 저기 바나 김기현 대표랑, 모든 시야 제한 구역,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들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동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제가 사실 도쿄돔 공연 하면서 제일 크게 신경 썼던 게 스크린 사이즈였거든요? 무조건 크게 간다. *(김영대 웃음)* 왜냐하면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그때 굉장히 혼란기였고, 막 막 싸우던 중이었잖아요.

김영대 : 맞아요 한창 때였죠.

민희진 : 저 그리고 그 도쿄돔 공연이 거의 중간에 엄청나게 홀드 돼 있어서. 저희 사실 도쿄돔 공연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지만 힘들었던 게, 온갖 스텝이 다 있었거든요. 저희 막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공연 기획팀이랑 안 했고, 하이브가 하던 팀이 아니라 이제 제가 따로 섭외한 팀에서, 거기다가 또 미술과 연출과 조명이 다 제각각 달랐어요.

그러니까 미술 연출 조명 미국에 있는 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뭔가 촬영을 하고 하는 팀이 일본. 그러니까 디렉션을 줄 때 제가 이제 부스에서 3개국어 그 번역하고 통역하고 막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막 하려고 했었냐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김기현 대표랑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도 사실 막 대중음악으로 그렇게 막 이게 뜻이 있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이제 교집합된 부분이 생겨가지구 제가 음악을 실제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 저 팀에 맡기면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

왜냐면은 개개인의 프로듀서들도 힘이 있지만 그 프로듀서들을 디렉팅하는 그, 저 같은 역할을 하는, 김기현 대표의 역할이 되게. 이제 왜냐하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또 알아보니까. 뮤직비디오 감독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면 안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테크니션 위에 있는. 그러니까 디렉터의 디렉터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알려졌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아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제가 믿는 친구들이랑 이제 오만 그림을 짜면서 이제 바나에서도 스텝을 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구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되게 조각보 모음처럼 만들어진 스텝의 구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중간에 조금 뻥 뜨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스탭분들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게 굉장히 그때 혼란기였는데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거든요. 공연할 수 있다. 우리 Min이 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래도 우리. 왜 이렇게 펑크 나면 중간에 도망가고 할 수도 있는데 신뢰로 우리를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그거를 이제 바나에서 중간에 컨트롤 되게 열심히 해줬고, 우리 어도어에서 퍼디 은주님이 또 이제 제 공백을 메꾸면서 또 이렇게 잘 해줬고, 어쨌든 중간에 그런 어떤 혼란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셨던 스탭들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퍼레이팅을 해줬던 어도어의 또 되게 힘, 고생을 했던 또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퇴사하기도 한 분들도 있고 뭐 많은데, 아무튼 이제 공연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렉터가 중요하지만 또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분들의 역량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헤쳐모였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도쿄돔을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스케줄이 꽉꽉 차 있는 그 스타디움이라. 굉장히 이제 시간을

빼주기가 힘든 거지. 야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되게 짧은 그 리허설 시간에 완전히 그 합이 짝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첫날 우리가 도쿄돔에서 리허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비슷한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큰 공간을 빌려다가 도쿄돔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는 단차도 없지 왜냐면은 그냥 평평한 곳이니까 공간이 너무 다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한 이틀 동안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 뉴진스 정말 대단해. 애들이 진짜 타고난 아티스트야. 정말 제가 도쿄돔 공연하면서 느꼈는데 순발력이 너무나 필요했거든요 이 공연이. 왜냐하면 그렇게 리허설을 했던 연습 공간 자체가, 그림을 그려놓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놓고 했는데 정작 도쿄돔에서 리허설은 딱 두 번밖에 못하고. 근데 그 첫 리허설을 하는데 애들이 거침이 없더라고. 그 순발력이 엄청나고. 그냥 약간 와 얘네는 미친 애들이네. 이게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공연장 무대에 올라가서의 또 분출하는 그들만의 아드레날린이 있잖아요. 네.

김영대 : 현장에서 오는, 그렇죠

민희진 : 우리 애들은 마치 집회장의 교주들처럼 *(김영대 웃음)* 부흥회의 기를 다 빨아먹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일어나는 애들이거든. 근데 그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막 너무 좋았고. 아무튼 그래서 도쿄돔의 공연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봐도 좋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버니즈들도 사실 이제 그런 공연장에서 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씨부리는 건데 지금 *(웃음)*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게 있고.

근데 그 공연장에서 그 큰 스크린에서 굉장히 첫번째 실제 실리허설, 테크니컬 리허설을 했었을 때 도쿄돔에서 처음에는 오와 막 걱정이 미친 듯이 들었거든요. 싱크가 안 맞고 막... 하... 이게 생각한 대로 송출이 안 되구 막 하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냐면 테크니컬 리허설은 처음이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전 세계에서 온 스태프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데도 저는 막 애가 타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몇 개 국어의 파티가 있었던 거구 (김영대 웃음) 막 미친 전쟁이 있었죠. 잠도 안 왔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구.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막 합을 맞췄는데 두 번째 날은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죠. 그래도 실수가 있었고 막 뭐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분들도, 첫날 둘쨋날밖에 안 겪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랑 소통했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 밤 늦게까지 막 이거 고치자 저거 고치자. 근데 실전에 실수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역할들을 자기 자리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그냥 완벽하게 송출한 거.

특히 그 하니가 푸른 산호초에 썼을 때 백미가, 어쨌든 송출할 때 이렇게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 리허설 때. 근데 이렇게 하니가 처음 등장했을 때 하니 얼굴을 완벽하게 탁! 익스트림 클로즈업 했잖아요. 허- 제가 그 와. *(박수)* 너무 그, 카메라.

김영대 : 오히려 현장에서 완성됐네.

민희진 : 브라보. 완전. 그게 그분들은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요구했었어도 우리 속으로는 다 아는 거야 막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웃음)* 근데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림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거를 솔직히 몇 번 못 느꼈던 것 같은데 그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그게 어느 때 탁탁! 느껴지거든.

김영대 : 거기서 오는 쾌감이 또 대단하죠.

12. 팀 뉴진스, 크루 버니즈, 그라데이션 성장

민희진 : 엄청나죠. 이게 그냥 척하면 척이야. 그니까 저랑 주로 일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우석 감독님, 퍼디 우리 은주님,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유미, 그리고 이제 최유미 실장, 그리고 이제 그런 바나의 김기현 대표, 우리 이제 250 프랭크 작곡가 친구들, 프로듀서들. 이런 되게 소수의 어떤 우리 그리고 아트디렉터 예민이, 김예민 디렉터. 이런

우리 이렇게 딱 저랑 합이 맞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팀이랑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김영대 :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거의.

민희진 : 네 설명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네. 그리고 수정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하 이거 하면 그냥 아!

김영대 : 뭘 원하는지 아니까.

민희진 :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 그냥 알아.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아이 잔소리하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김영대 :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아 알아 응

민희진 : 네 아! *(웃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게 너무 편하고 좋고. 그리고 우리 신동글 감독, 신희원 감독, 우리 같이 했던 자경 감독 이런 친구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척하면 척! 하는, 이 고민을 똑같은 포인트에서 같이 해서, 얘기할 때 아다리가 착 맞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 포토그래퍼 시영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그 취향에 대한 교집합이 기본적으로 있고 공감대가 있는 거죠.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각자 굉장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있는 건 기본인데 뭔가 대의가 있어요. 다 제각각 왜냐하면-

김영대 : 대의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민희진 : 네. 뉴진스를 만들었었을 때 이 친구들한테 내가 레이블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이 레이블로 뭘 추구하고 싶은지. 제가 그 뉴진스 PT 기획안을 만들 때부터 이 친구들한테 불러다가 다 PT하고 다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회의하고 내가 뭘 추구하는지 얘기하고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케이팝 씬에 남아서, *(웃음)* 제가 케이팝 좋아하시는 줄 알죠.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구 그게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원래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도 아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막 좋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있을 수밖에 없지 너무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또 이제 정이 든 씬이니까. 이 케이팝 씬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크게 막, 모르겠어요. 거창하게 획을 긋고 싶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잘하면 획은 알아서 그어지는 거구요, 그냥 저는 이 친구들이랑 일거양득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었죠. 그러니까 각자의 포트폴리오도 완벽해지면서 대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 그 큰 일이 뭔데라고 한다면 뉴웨이브. 뭐지? 보사노바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흐름. 그러니까 저는

김영대 : 새로운 물결.

민희진 : 네 누벨바그. 그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랑수와 트뤼포 엄청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 '400번의 구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저한테 되게 되게 인상적인 영화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변곡점이 되는 항상 그, 굉장히 문제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김영대 : 있죠.

민희진 : 문제작이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작이 시대에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굉장히 건전한 힘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자연스러운 뉴웨이브를 만들고 싶었던 꿈이 있고, 그거에 공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재밌는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환경을 바꾸고, 거창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다 징그러워하는 사람들 으! 그런 얘기하지도 마.

김영대 : 혁명, 전복.

민희진 :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죠 아무도. 그냥 웃기고 재미있고 우리끼리 신나는 일 해보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우리 또 영음이 이름을 빼먹었네. 우리 영음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빼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김영대 :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민희진 : 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빼먹으면 또 은근히 또 서운하거든.

김영대 : 이거 역사적인 라이브를 *(웃음)*

민희진 : 어떻게 우리 조감독들 이름까지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김영대 웃음)* 늙어서 또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무튼 어...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우리랑 같이 했던 스태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뜻을 알고 뭉친 친구들이랑 이런 일을 했었을 때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사실은 버니즈가 어찌 보면 저는 팬덤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친구들의 이름 같거든요. 그냥 크루의 이름. 그냥 내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팬덤! 이게 아니라 제가 기획서에도 이제 뉴진스 기획서에도 썼었던 게 저는 그 시혜적인 시각이 싫었거든요. 내가 뭔데 남들한테 힐링을 줘?

김영대 : 뭘 베푼다?

민희진 : 네. 그런 그런... 왜냐면요, 위안은요. 내가 주는 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런 시혜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이닝에 집중하자. 그냥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야 최대한. 천박하지 않는 즐거움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위로를 주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그걸 또 징그럽게 위로라고도 말 안 해. 야 재밌는 거 하러 가자. 그냥 쿨한 거 하자. 재밌는 거 하자. 멋있는 거 하자. 이렇게 되지.

김영대 : 단 그 취향과 수준은?

민희진 :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는 크루, 버니즈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취향에 이제, 우리만 또 너무 최고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끼리 취향에 맞는 친구들이-

김영대 : 그 결이죠 결.

민희진 : 네 맞아요.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어떤 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팬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에 장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좀 저한테는 좀 이상하고, 친구를 만드는데 친구한테 장사를 해? 이게 좀 웃긴 거야. 근데 제가 말했듯이 비즈니스는 돈이 재화가 이렇게 재생산, 확대 재생산돼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건전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나온 게 좋은 걸 많이 주자. 자연 발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이상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순간순간에 제가 잔소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는 으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귀한 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완벽주의자고 약간 결벽증이 있어서 그 순간에도 으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것도 되게 서로 좋게 만들고, 그 과정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일하는데 밖에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은 상사에 나를 대입하는 게 저는 극혐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겪은 상사랑 나는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고 잘났다가 아니라, 내 나름의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저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잣대에서 저를 자기가 겪었던 상사가 그랬기 때문에, 쟤도 저렇겠지 뭐 밑에서 일은 다 하고 뭐 위에서 막 컨펌 하나 할 거야. 저는 사실 거꾸로거든요.

제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개념은 어찌 보면 오히려 그 길라잡이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섬세함을 어차피 제가 설계한 거기 때문에 저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 섬세함이 살아날 때는 언제냐면 각자의 작업자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내가 그 포인트만 꼬집어줄 때. 그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내, 내 스타일대로 다 되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게 나오거든.

김영대 : 그렇죠.

민희진 : 근데 그거를 탈피하려면 이 사람들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살짝 놓친 어떤 포인트.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어서 놓친 포인트만 살짝 살짝 비틀어주는 거야. 그러려면 사실 사람을 다룰 때도 굉장히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20년 동안 케이팝 씬에서 그 트레이닝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막 완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점점 이제 좀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피로하고 불필요하게 언성 높이지 않아도 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는 게 사실은 저의 되게 그 숙제이자 염원이자 어떤 궁극의 바램 같은 거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태프들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 허투루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그리고 아까 갑자기 굉장히 도쿄돔 때 고생했었던 한나 이름을 얘기 안 했네 갑자기 떠올랐어. 한나가 통역, 엄청 영어를 엄청 잘하거든요.

김영대 : 지금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한나 씨.

민희진 : 네 그리고 한나는 숨은 데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라서, 안 보이는 데서 험지의 일을 티 안 내고 해요. 서울대 출신의 재원인데 아하하 *(웃음)* 아무튼 하도 본인이 티를 안 내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하는 거고.

김영대 : 되게 좀 뒤로 물러서 있고 싶은 스타일이신가 봐요.

민희진 : 네 바나의 그 한나.

김영대 : 아 그렇구나.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듣고.

민희진 : 놀랄 수도 있어 왜 내 얘기하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평소에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좀 못해가지구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리고 통역을 너무 잘하거든 아무튼.

김영대 : 통역을 전담을 하셨었어요?

민희진 : 아니요. 통역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통역이 또 잘못되면 이게 좀 불필요한 게 또 오해가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되게 잘하는 분이라. 근데 이제 그렇게 작은 일들에서도 되게 프로페셔널... 그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섬세한 어떤 지점들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누구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런 일들이 다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 결국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름 얘기하지 않았던 이제 수많은 분들의 고생으로 네.

김영대 : 도쿄돔 무사히.

민희진 : 도쿄돔을 무사히. 근데 굉장히 잘. 실수 없이.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리허설을 겪고 언성도 높아진 적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아다리가 착 맞는.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고마웠던 거예요 모두에게. 아 그래서 이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된다. 그러면은 착! 착! 착! 맞거든.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감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고.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 뭐야? 긍까 *(김영대 웃음)* 아니 진짜. 일을 잘하니까 애들이. 탁 이제 올라갔었을 때...

김영대 : 아까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늘 봐온 친구들이고 내가 정말 같이 성장시킨 친구들인데 내가 그 순간 하는 걸 보고 천재 아니야? 이랬다는 그게 되게.

민희진 : 이게 내 자식이어서 그런가가 아니라, 그런 것도 약간 있겠죠. *(김영대 웃음)* 살짝 살짝 있기는 할 텐데 그거보다 저는 그래도 냉정한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이게 다 칼같이 보는 스타일인데,

김영대 : 솔직하시잖아요.

민희진 : 네. 그리고 이렇게 우쭈쭈가 기본 되기는 하지만, 뭔가 못한 걸 잘했다라고 절대로 얘기 못해요 저는. 성격이. 못했는데 억지로 잘했어 이거 아니고, 애들이 녹음할 때나 이럴 때도 잘했어 하면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해서. 그러니까 저는 못했으면 어 이거는 조금 아쉽다, 별로다, 혹은 말을 안 하거나 그냥 패스하는 거지 굳이 기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칭찬이 원래 너무 헤퍼도 착각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그렇게 헤프게 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해프게도 할 때는 이게 사석에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사석이니까.

김영대 : 격려하고 애정을 보여주는

민희진 : 네! 뭐뭐뭐 그 사석에서 뭘 아껴서 뭐 해? 그거 퍼줘야지. 그게 아니라 근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잘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 뭐랄까 어... 이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거는 좋은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좀 명확해야 애들이 헷갈리질 않거든. 이게 칭찬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그 구박, 이상한 폄하에 익숙해지면 그 서로의 이상한 장단점이 그러니까 각자의 단점이 생겨요.

김영대 : 그럴 것 같아요. 응.

민희진 :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또 이제 그 습관이 생기죠. 그 왜 업계용어로 '쿠세' 이렇게 마치, 이제 은어,

김영대 : 있죠 쿠세라는 말을 쓰죠 업계에서.

민희진 : 네. 그렇게 표현하는, 이게 습관보다 조금 센 어떤 몸에 배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게 생기면 나중에 이제 늙어서 살짝 꼴 보기 싫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런 것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게 보시는 버니즈뿐만 아니라 대중분들도 이 그라데이션 성장의 어떤 묘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애들한테 막 잘하기를 바라고 이거는 자기 어차피 즐거움을 버리는 일이야. 세 살 때 미덕이 있고 네 살 때의 미덕이 있고 다섯 살 때의 미덕이 있고 나중에 커서 너무 잘하잖아요? 징그러워 아이 네 방에 가 이제 *(웃음)*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막 끼고 살고 막 이러는데 미숙한 게 예뻐서.

근데 왜 그거를 채찍질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인데, 같이 그걸 즐기면서 막 잘한다 예쁘다 그거는 좀 더 해보자 이렇게 잘해 나갈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막 어우 막 갑자기 칼같이 쳐서 모두가 다 서른 살처럼 하길 바라는 거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막 종용하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취자? 겪는 사람의 어차피 그 즐거움을 뺏어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구박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자기가 깎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거를 좀 너그럽게 보면 즐겨지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 디스코그래피가 나중에는 굉장히 귀해져요.

김영대 : 유독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 씬에서의 이상화라 그럴까? (예) 그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민희진 : 맞아요. 왜냐면 그게 팬덤이 키우는 인식이 기본 깔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어찌 보면 프로듀서 못지 않은, (그렇죠) 그런 어떤 프로듀서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팬분들이 들으시니까 비위 맞추려고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영대 웃음)*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없는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쉽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즐거움을 잃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것마저도 즐길 수 있는데.

13. 하이브 내부보고서와 업계, 미끼의 보상, 미행

민희진 :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이 회자된 문건을 거부했던 이유가 *(김영대 웃음)* 굉장히 신랄한 비판 메일을 써서 막 보냈었거든요. 1년을 참다 참다 내가 못 참고 내가 이걸 쓴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누구를 위한 글이고, 이게 이게 뭐 재밌냐? 저는 나중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나중에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읽다가 못 보겠더라고. 그 도대체 목적이 뭔지, 누구를 위한 글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사람.

그리고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 업이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각자의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이 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헤드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업을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웠거든요.

가뜩이나 그 사람들은 주입식으로 헤드가 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석의 코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그러다 보면 그 풍파에 다 찌들어가지고 가뜩이나 상명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구? 그러면 이게 업계가 뭐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좀 처음에는 이상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어질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이상한 건가? 혹은 원래 다 이 업계는 다 이렇게 하나? 라던지 이상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고 싶어서도 비판 메일을 보냈던 거거든요. 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이거 좀 이상한 일이야. 왜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면은 밖에 까. 다 보여줘 그럼.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제 입장에서 처음에 뭐 이건 뭐 제가 공개한 것도 아니지만 국회에서 이제 드러낸 거고 사실 누군가 그걸 부당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제보를 했겠죠. 왜냐면 제가 알았던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당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김영대 :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겠지만 있었겠죠.

민희진 : 않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소심해서 액션 취하지 않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아이 뭐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나만 밉보이겠지?

김영대 : '뭐가 바뀌어?'

민희진 : '니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나 듣겠지? 이러니까 그냥 싫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사들도 그런데, 뭐 조직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또 정당화하거나 뭐 그렇게 합리화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니네가 그리 침묵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해야지. 왜 비위를 맞춰?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어요. 밥벌이 때문에. 아니 그럼 나는 없냐? 나는 밥벌이 안 하고 나는 안 하냐? 그냥 그게 성격의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제가 독특한 성격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을 해도 난 안 불편한 성격이거든. 말을 안 하면 불편한 성격이지. 그러니까 아 그래 총대를 매라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냥 총대를 맨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그다음에 또 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그 이후에는 뭐 어쨌는지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개선돼야 되는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드러났어야 됐고, 그리고 이 말의 반성이 아니라 심각하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게 돌아봐야 된다. 자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업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막 바뀌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게,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뭐야? 이런 매일매일의 투쟁 매일매일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어느 순간엔가 어 달라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고 종이에 물이 이렇게 젖어들듯이 어느덧 스며드는 거지. 그거를 누군가 바꿔주겠지 언젠가 뭐 하겠지 이게 아니라고.

내가 왜 폭발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날 건드려서지만 그 건드리게 된 요인이 있었을 거잖아. 내가 그 사람들 긁은 포인트가 있거든. 왜 긁었겠어? 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긁은 거고. 내가 왜 밉보였겠어요? 그동안 그거를 좌시하지 않고 계속 미운 짓을 했거든.

저는 사실 주주간 계약 외에도 이렇게 보상으로 저한테 주어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요구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그들이 밝힌 대로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은 제가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지금 현물화해야 보상을 받은 거잖아. 근데 저는 한 개도 월급 외에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연봉 외에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시는 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민희진이 얼마를 벌었는데- 아니 뭘 얼마를 벌어 월급을 받았는데. 그냥 월급만큼 번 거지.

그 이외에 저는 주식을 팔지도 않았었고 그동안. 그냥 왜냐면 제가 왜 주식을 안 팔았냐면, 내가 뉴진스가 잘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의리로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정 수준까지 내가 뉴진스를 올려놓을 때까지 팔지 않는 게 임원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이 분쟁 중에도 팔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신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근데 저를 무슨 돈에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빠가사리 같은 돌대가리 같은 얘기죠 사실. 돌대가리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 이성적으로 돌대가리가 아니면은 이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그렇게 보상이 있으면은 그 보상이 말했죠? 실현이 된 보상이 아니라 언제 실현이 되냐면요, 제가 입 다물고 계약 기간까지 조용히 지켰을 때. 계약 기간을 무사히 완주해서 계약이 끝난 시점에 받는 게 보통 그런 스톡옵션이나 지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다 모든 저한테 걸려 있는 보상들은 다 계약이 끝난 시점에 걸려 있는 보상들이거든요. 그래 그게 뭐겠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주는 건 저한테 미끼를 주는 거예요. 니가 닥치고 있으면 이 계약 기간까지 니가 가지고 있는 계약 기간까지 니가 입을 다물어주면 너 이거 받을 수 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미끼 주는 거죠? 저는 애시당초부터 그런 미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전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미끼를 주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내가 받는 돈인 거고. 근데 그 보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말을 안 해?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예 안중에 없었어.

그냥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도대체 이 일이 왜 터졌을까? 내가 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한테 뭐 탈취하려고 했다는 등 왜 법원에 내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했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새끼들이 계약 기간까지 나를 입다물게 하고 있으면은 뭔가 잘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액을 얻기 위해서 조용히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막 설쳐? 그러면 이 거액보다 더 큰 금액이 있다는 거 아닌가라고 상상한 건가? 라고 저 혼자 추론했죠. 그러니까 뭐 뒤에 허구의 회사를 만들고, 막 어쩌고 저쩌고. 상상과 소설을 막 써댄 거 아닐까. 제가 위험한 얘기해가지고 지금 계속 보시는 거예요? *(웃음)*

김영대 : 어 아니요, 그냥 반응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반응에 계속 'ㅋㅋ' 만 있어서 왜 그러지 했는데,

민희진 : 아니 그냥 이게 제일 솔직한 생각이에요. 이게 아니면 도대체 이 소설이 성립이 안 된다. 왜 저를 미행할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게 너무 음침하고 굉장히 이게 불순하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뭘 위해서 미행을 해? 뭘 얻으려고? 여러분 미행해봤자 저는 얻을 게 없어요. 맨날 *(웃음)*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스타일이라. 애시당초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싸움이 된 거라니까?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 그냥 고르신 거구나. 이런 애밖에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느낌으로 이 싸움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양비론을 들이대지 마세요. 나같이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인간이 없으니까.

14. 플리 : 프란시스 레이, 볼라레 비아

김영대 : 우리 음악 얘기할 때는 되게 댓글이 천천히 올라왔거든요. (네) 아까 잠깐 봤을 때. 방금 그 이제 빠가사리 이후에 *(민희진 웃음)* 창에서, 창에서 읽을 수가 없어

민희진 : 모가지 아파. 너무 이쪽만 보고 있어가지고.

김영대 : 너무 너무... 텐션을... 이쪽만 보고 있어서 그러죠. 노래 하나 준비된 거 있어요?

민희진 : 네 틀까요?

김영대 : 하나 트시고 잠깐 스트레칭 하세요. 나 뉴진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야 되는데 뉴진스 얘기를 약간.

민희진 : 벌써 열 두시야. 벌써 열 두시야.

김영대 : 아니 본인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민희진 : 아이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뜻이에요. *(웃음)*

김영대 : 죄송.. *(웃음)* 뒤늦게 돌아본 약간 레트로스펙티브한 시선에서의 뉴진스의 지금까지 노래들을 한번 짚어볼까 했거든요 원래.

민희진 : 아 진짜 되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김영대 : 그죠. 그 컨템포러리-

민희진 : 그건 나중에 해요. 그거 오늘 못해요.

김영대 : 못하죠.

민희진 : 네 그거 어떻게 해 *(웃음)*

김영대 : 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민희진 : 나중에 해요. 그냥 제가 그때 저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외갓집에서 눈 내리면서 들었던 음악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틀어도 되나요?

김영대 : 물 좀 드세요.

민희진 : 네 저 이거 먹고 있었어요. 틀게요.

Francis Lai - Live for Life

https://youtu.be/MwjEV-LtdMM?si=IEM_LN7o88DzF8Sc

김영대 : 다들 밤새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앉아 있는 것만 하는데 되게 피곤하거든요. *(민희진 웃음)*

민희진 : 저도 모가지가 아파요. 자리 바꿔볼까요? 우리?

김영대 : 자리 바꿔요? 자리 바꿔봐요 그럼. *(자리 바꿈)*
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네 이게.

민희진 : 딴 노래가 나왔어요. 갑자기. *(노래 다시 재생)*

김영대 : 목이 아파서 바꾼 것도 처음이지만...

민희진 : 으하하 *(웃음)* 아니 근데 진짠데 어떡해.

김영대 : 말을 이렇게 안 하고도 시간이 많이 간 것도 굉장히 또 특이한 현상이라서.

민희진 : 근데 이게 눈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곡이.

김영대 : 아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이제 이 정체성을 파악 못하신 분이 있어서.
진행자를 교체하라는 말도 있어요.

민희진 : 으하하하하하

김영대 : 피곤하면은. 아니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이라니까!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

민희진 : 아니 이미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자러 갔을 거예요.

김영대 : 그렇긴 하죠. 네. 한 이천 분쯤은 자러 가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영대님 가고 대퓨님 혼자 하라는 게 말이 안 맞다니깐요! *(민희진 웃음)*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이라니까요. 영원히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민희진 : 진짜 영원히 들을 수 있대요? 헤-

김영대 : 그 말을 너무 곧이 곧대로 받지 마세요. 피곤해지니까.

민희진 : 뭔가 되게 연인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말들. *(웃음)*

김영대 : 그러니까 너무 영감을 받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민희진 : 아니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마워서.

김영대 : 그렇죠.

(스탭 코멘트)

김영대 : 몬스터요? *(민희진 웃음)* 나 아까 오쏘몰하고 아르제닌 먹고 왔는데도 회복이 안 되네. 내 생각엔 말을 너무 적게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을 하면서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음, 음, 이러다보니.

민희진 : 아이 또 이게 너무 진상이 되면 안 되니까.

김영대 : 아니 근데 약간, 약간 우리 그냥 골방에서 노래 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민희진 :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김영대 : 약간 지금... 방송한다는 느낌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민희진 웃음)*

(스탭 코멘트)

김영대 : 왜 이렇게 그렇게, 격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스탭 : 아니 죄송하다 하시니까)

김영대 : 아니 아니 죄송하진 않죠.

민희진 : 어차피 욕할 사람 나갔겠죠.

김영대 : 어우 생각이 되게 편하다. 옛날 그 DJ 나오는 다방 같다.

민희진 : 저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김영대 : 되게 좋죠. 운치 있잖아. 옛날 음악 감상회 회원들이 갖고 와서 트는 거가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누가 골라서 노래 틀고 있으면 그 노래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낯선 풍경이에요. 요즘 누가 음악을 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냐고.

민희진 : 근데 그거 되게 설레이는 풍경이기도 해요.

김영대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치가 없어졌다는 거지.
저보고 초대 손님을 모신 것에 후회하지 않냐고... *(웃음)*

민희진 : 으하하하 *(웃음)*

김영대 : 민희진을 초대한 것에 후회하지 않냐고 하는데 후회하지는 않고요.

민희진 : 어차피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고, 떠들 자유가 있고. *(웃음)*

김영대 : 저는! *(웃음)* 선택의 자유가 없어갖고.

민희진 : 제가 이 분쟁을 하면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잘 안 만나져요. 왜냐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교 모임이, 이게 사교 모임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오랜만이라.

김영대 : 아 뭔지 알아요. 아티스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민희진 : 오랜만이라 갑자기 이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동굴에 있다가 *(웃음)* 갑자기.

김영대 : 근데 작곡가들은, 어떤 음악을 들어서 영감을 받으면 그게 실제로 내 코드웍이나 내 편곡으로 그거를 좀 더 다이렉트하게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대표님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어떤 영감이나 평소에 그런 아트에 대한 영감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리거나 내가 직접 곡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게 트랜슬레잇 되는 거에요?

민희진 : 그게 그거 엄청...

김영대 : 딥한 얘기예요?

민희진 : 딥한데 설명하고 싶은데 표현이 참 어려운 얘긴데.

김영대 : 일단 해보세요.

민희진 : 근데 저는 그게...

김영대 : 그게 사실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민희진 : 어 그게 저의 일의 원동력이긴 하거든요.

김영대 : 핵심이긴 한데 아 이거 한 번 더 모셔야 되나?

민희진 : 아니 왜냐면은 *(웃음)* 그게 왜냐면 저 그 기분 때문에 일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딱 들었었을 때 이걸 똑같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어떤 영감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어떤 인상, 어떤 그 느낌. 이런 게 막 생겨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노래를 들어서 노래로 이게 아니라, 그걸 이제 시각화하거나 아니면은 행위화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프로모션 같은 것들은 행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하게 하는 거. 약간 저는 사실 이런 음악을 들어도 경험이 떠오르거든요.

김영대 : 우리 노래 하나 더 깔자. 왜냐면 그게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같아.

민희진 : 저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엔니오 모리꼬네 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음악 시리즈처럼 지금 제가 살짝 가려고 하고 있는데.

김영대 : 되게 마이너한 영화 OST에서 고르셨을 것 같아.

민희진 : 네 어 맞아요.

김영대 : 그럴 것 같아요.

민희진 : 근데 이거 처음에 저는 꽂히면 그 곡만 100번씩 듣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막, 그게 막 다 뜯어져서 외워지는-

김영대 : 카운트가 엄청 올라가 있구나.

민희진 : 네네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경이로운 기분이긴 하지. 왜냐면은 이게 진짜 취향을 나눈다라는 거는 거의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거야.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김영대 : "희진님, 영대님을 고정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 고 했는데 이게 제 채널입니다 여러분. *(민희진 웃음)* 제 채널이에요. 아니 오늘 착장을 약간 되게 스쿨오브뮤직처럼 하고 와갖고.

민희진 : 왜요? 스쿨오브뮤직.

김영대 :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더 잘 묻어 배경에 나보다. 나는 그냥 그렇게,

민희진 : 아 그래요? 노란 의자일 줄 몰랐는데 노란 의자여가지구.

김영대 : 그러니까. (나는) 따라온 사람 같아.

민희진 : 하 이게 또 플레이리스트를 보니까 또 틀고 싶은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다가 길을 샐려고 하는데.

김영대 :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노래 안 깔아

민희진 : 뭔가 그래도 어... 하 진짜 이것도 틀고 싶다. 이거 경음악 말고, 제가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랑 굉장히 흡사한 경험을...

김영대 : 말씀을 안 했는데요 제가.

민희진 : 아니 아까 *(웃음)*

김영대 : 아니 말씀을 오늘 안해서, 어떤 내용인지.

민희진 : 음악을 듣고 어떻게 풀고 싶냐. 이게 제가 사실은 예전에 크리스탈이랑 태민이랑 카이랑 같이 화보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보 계획을 한 이유가 이 노래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 아 이걸로 뭐를 좀 해보고 싶다, 이 노래를 쓰고 싶다, 해가지고 만든 게 그, 그 화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요상하게 이어지는 거라. 이게 사실은 보시는 분들은 화보를 보고 이 음악이 살짝 깔려 있는 어떤 잠깐의 영상을 보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래 주인공은 이 노래였다. 이 노래에서 시작했다. 그 관점에서 이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되게 우연히 디깅하다가 찾은 노래인데 예전에.

Volare Via - Umberto Rosario Balsamo

https://youtu.be/WW2BkyIJdis?si=b-tOs7pBpa82Q5Qr

김영대 : 발사모.

희진님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HP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민희진 : 으하하하하하 *(웃음)*

김영대 : 듣고만 있을 때는 HP가 되게 소모된 느낌이었는데.

민희진 : 약간 뭔가 좀 청춘 같은 되게 아련한 청춘의, 막 너무 막 설레이는데 못 다가가는 애들 있잖아요.

김영대 : 저 언어를 쓸 때만 나오는 그 청춘미가 있어. 뭔지 알죠?

민희진 : 맞아요. 맞아요.

김영대 : 영어에서는 또 안나와.

민희진 : 맞아요. 각각의 언어가 주는 딱 그 매력이 있어.

김영대 : 저런 노래는 뭔가

민희진 : 근데 심지어 이거 가사도 제가 막 찾아봤었는데 너무 시적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좀 달뜨게 하는 딱 그 느낌이 있어요.

김영대 : 확실히 그런 정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민희진 : 좀 뭔가 이렇게 발그레해지는 거 있죠.

김영대 : 이게 축 쳐진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애틋하고.

민희진 : 맞아요. 애틋하고.

김영대 : 애틋하다는 말이 되게 이게 트랜슬레잇 안 되거든요.

민희진 : 맞아 그쵸.

김영대 : 되게 안 돼.

민희진 : 저는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과 감정 사이의 느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틋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애틋하다.

김영대 : 정확하다. 감정과 감정의 사이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민희진 : 딱 그 교집합이 뭔가, 제가 아까 말한 '달뜨다' 는 표현 있죠. 그러니까 왜 무슨 새색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발그레해진다, 수줍다, 그리고 뭔가 달뜨다, 애틋하다. 이런 어떤 오버된 감정이 아니라 그 격한 감정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어떤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것도 너무 좋아하는건데.

김영대 : 움직이는 감정이네. 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민희진 : 근데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

김영대 : 네 맞아요.

민희진 : 그러니까 나만 아는 감정. 근데 그 나만 아는 감정을 남이 알았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와! 너무 좋아해. 이거보다 나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였는데 얘도 나 쟤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어? 우리 좋아하는 것 같은데... 를 느꼈을 때 첫 번째 감정 있죠. 저는 그게 제일, 엄청 매력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감정이 이 노래에 엄청 잘 들어가 있고

김영대 : 근데 멜로디는 막 *(허밍)*

민희진 : 네. 네.

김영대 : 가사는 '너를 위로해 줄게 위로 위로' 막 이럼 어떡해요. *(민희진 웃음)*

민희진 : 아니에요.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이게 날아가는, 날아가는 새에 비유한 어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김영대 : 웃기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민희진 : 아우. 그게 아재개그잖아요... 아무튼 저는 어쨌든 이런 좀 뭔가 또 아저씨가 부르잖아요. 근데,

김영대 : *(웃음)* 아저씨란 말 들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찔리지 응

민희진 : 되게 설레이는 감정을 담담하게 어떤 그 느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감정은, 나이나 성별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나 있는 감정이고 그 그 미묘한 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 표현을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이 느끼는 거거든.

사실 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 표현을 이걸 실현시키려면 아 내가 생각하는 약간 피사체들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약간 미묘하게 감정을 나누는데 너무 들어가지 않은 감정 정도로 느껴지는 게. 그리고 또 그 피사체들이 이 촬영을 하면서 또 좋은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서로한테. 약간 그런 좀... 뭔가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있는 작업을 좀 추구하는 성향?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시각화될 때, 아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 작업을 한다. 그 예시로 사실은 이제 이 음악을 골라서.

김영대 : 그렇구나, 그렇구나.

민희진 : 네.

15. 직관 안의 관념, 경영과 프로듀싱

김영대 : 저 뉴진스 음악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직관적이라는 말이 요즘 약간 이제 오해가 돼서, 예를 들면 유치한 거를 유치하게 전달하고서 "너 알겠지?"

민희진 : 아, "직관적이야 이게"

김영대 :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직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민희진 : 맞아요.

김영대 :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했는데 지금 방금 말한 거예요. 뭐냐면... 그 미묘함을, 미묘함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 미묘한 방식으로.

민희진 :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 안에 관념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관념을 빼고 '직설' 만. 그러니까 '직접' 만.

김영대 :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야.

민희진 : 네 그것만 주목하니까 그런데, 직관에는 사실 그 관념의 개념이 있잖아요. 사유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념적 개념을 사실은 굉장히 중시하면 그런 미묘함을 캐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왜 그런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더 친해지냐면 왜 힙스터병에 걸리냐면요, 이건 나만 하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웃음)*

김영대 :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민희진 : 근데, 네 근데 이거 나만 아는 것 같이 너무 나만 아는 감정 같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나와서 이걸 한다고 ? 그것도 대중문화에서? 이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주목받았던 이유는, 대중문화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중에 어 이거 나만 아는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대놓고 하네? 반가우면서 미웠을 거야. (그죠) 원래 보통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갑지만 한편 밉거든? 저거 나만 아는 감정인데 쟤도 안다고.

김영대 :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거를 되게 디스플레이하고 (맞아) 포장하고 그걸로 심지어 돈도 벌고.

민희진 : 그럼 또 네, 살짝 꼴보기 싫거든요. *(웃음)*

김영대 : 그럴 수 있죠. 그 얄미울 수 있죠.

민희진 : 근데 저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와 다르게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웃음)*

김영대 : 오 되게 마무리 잘하는데.

민희진 : 아니 실제로 저는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고, 그런 감정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 뉴진스 많이 좋아해요.

김영대 : 응, 맞아요.

민희진 : 그러니까 이 애틋함을 서로 너무 아는 거야. 이걸 그래서 지켜주고 싶고 서로. 보호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뭔가 이 팀을 좀 특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진심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감정을 다 느끼고 이렇게 다 팀웍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설명하니까 그게 그거야말로 직설, 직관으로 알아듣게 된 건데,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던 이런 진심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구, 굉장히 되게 이상한 케미스트리를 발현시킨 거고, 이 이상한 케미스트리가 이전에 없었던 어떤 현상이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귀중한 경험이 돼서 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대중문화가 주는 그런 어떤 미덕, 그리고 대중문화가 가져야 될 어떤 내용이 이런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이 섬세함의 조율.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좀 내비두기도 하고,

어느 한편은 알면서,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는 좀 리딩도 해주고. 이런 절묘함의 조화가 있을 때 대중문화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질 좋은 걸 가지고 나왔다가 프로파간다 하는 순간 사람들한테 문화는 굉장히 이게 반감으로 오거든요.

김영대 : 예술은 선언을 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는 거야 사실.

민희진 : 네 그리고 촌스러워져요. "내가 이거 하는 거야" 하는 순간 그게 가치가 확 떨어져. 그리고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아요. 항상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되고. 그래서 왜 그 힙스터병의 끝, 그 힙스터들의 패션의 미학의 끝은 추리닝이다. 이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말 그대로의 추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한 데서 오는 자기 스타일의 자신감.

김영대 : 자신감, 그리고 그거를 이심전심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민희진 : 네 맞아요.

김영대 :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입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저는 아까 직관 직설 얘기할 때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예술은 작가가 감정을 인코딩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디코딩을 해야 된다고. (응) 근데 그 인코딩 디코딩 과정이 없이 이해돼야 한다면 그건 직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건 그냥 유치한 거지 (맞아요) 그냥 그거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배운 경험과 미학적인 경험과 어딘가의 훈련을 통해서, 그게 본능적으로 보편적으로 내가 디코딩이 되고 내가 그걸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희진 : 그쵸. 사실.

김영대 : 그런 걸 만드시는 것 같아요.

민희진 :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사실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듀싱과 경영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케이스들이 없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몰라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는 무슨 이제 제가 원하는,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어떤 완벽미를

추구한다는 말. 그 완벽미가 무슨 말이냐면 남이 봤을 때 완벽한 이거 아니고 내가 그린 그림을 최대한 구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려면 비즈니스랑 결합이 없이, 이 절묘한 결합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파워퍼프걸이 무라카미 타카시를 어떻게 만나. 이거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흥분됨을 알기 때문에 만나게 하고 싶구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게 비즈니스거든. 그게 비즈니스 상대한테 그게 먹혀야지. 아 우리가 이번엔 이렇게 돈 벌 거니까 이거 합시다. 이런 그렇게 떨어진 비즈니스로 무슨 비즈니스를 해.

그러니까 애플이 잘 된 이유가 있잖아요. 애플이 잘 된 이유는 그 섬세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철학까지 확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원웨이로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압축, 그 집약, 그 밀도. 이런 게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빠'가 생겼잖아. 애플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편하면 난 감수하겠다. 그게 사실 예술이거든요.

김영대 : 어차피 저 사람이 내 지갑 털려고 하는 거는 우린 알아. 그건 암묵적으로 그 게임인데.

민희진 : 즐겁게 털리는 거면은,

김영대 :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지.

민희진 :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일이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음반 없어도 살죠. 근데 이제 그냥... 이거 꽃이 뭐가 이게 좋아서 이게 득이 돼가지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 그냥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놔두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냥 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얼마나 그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와이프, 그러니까 내 애인, 내 옆에 친구가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면 그냥 삶이 되게 풍요로워지잖아. 같이 있는 친구들이 기분이 좋으면 같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소한 일상을 바꿔주는 게 대중문화의 역할이고 굉장히 그 사명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프로듀싱과 경영의 통합을 얘기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는 원래 안 그랬구! 이 업은 뭐 이랬구!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카톡으로도 증거가 다 있는데. 제가 이 회사에 올 때 저한테 한 약속은 그런 게 아니었다.

김영대 : 아까까지 얘기로 끝내시면 안 될까요?

민희진 : 아니 그니까 그게 이제 다 이어지는 얘기니까 *(김영대 웃음)* 왜냐면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게 하는 주장이 저는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깔 게 없어서 까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저 년이 미워 죽겠는 거야. 틀린 말을 안 하면 원래 사람이 더 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만 근데 어떡해? 그게 맞는데 맞다라고 말을 해야지.

김영대 : 아르제닌 또 어디갔지? 하.

민희진 : *(웃음)* 그냥 약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도 피곤한 인생을 사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행복한 뭐 셀럽의 삶이 어딨어요. 일하기 바빠죽겠는데 지금. 셀럽은 타고난 셀럽들이 셀럽처럼 사는 거지. 나는 항상 식모고 하인 같은 느낌이 늘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왜 나는, 왜 그냥 아니 내가 다-

김영대 : 일만 하다가 *(웃음)*

민희진 : 이거 내가 다 주도하고 내가 다 리딩하는데도 항상 뭔가 서포터의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행주를 늘 짜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맨날 닦아야 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막 모든 부분에서 꼭 그런 만족감이 충만한 인생은 아니야 그런 인생은 또 없고. 그리고 고단함이 있어야 열매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인생의 순리고 진리라서 그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순리잖아요?

16. 플리 :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 슬로우댄싱, 뮤비감독들

김영대 : 이탈리아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 HP를 회복하려면.

민희진 : 갈까요? 제가 갈까요?

김영대 : 이탈리아 사람 노래 또 없어요?

민희진 : 아니 너무 많죠. 저는 사실 틀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틀을 수 있는데.

김영대 : 아니 그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노래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시네요.

민희진 : 아 그래요? 그러면은

김영대 : 아니 저희 커뮤니티에도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민희진의 취향, 민희진의 어떤 노래 픽 이런 건데 이거는 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민희진 : 그 아스트로드 지우베르투가 육성이 없는, 이제 그 색스포니스트랑 이제 그 낸 음반이 있는데, 이 여자의 육성이 없지만 이 여자의 음반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한 스탠리 투렌틴이라는 섹스폰 연주자가 있어요. 그 분이랑 같이 한 음반인데 이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좋거든요. 한번 틀어볼게요.

김영대 : 오 DJ 완전. *(웃음)* 들어볼게요.

Vera Cruz - Astrud Gilberto with Stanley Turrentine

https://youtu.be/NQgVxxCDXjo?si=d8S0YdeQHKJsmsLW

민희진 : 약간 키워주셔도 돼요.

김영대 : 베라 크루즈.

민희진 : 네. 되게 유명한, 이게 많이 리메이크되고 많이 리바이벌 되는.

김영대 : 이때 노래들은 뭔가 스트럭처를 100프로 이해하지 않고, 약간 진짜 감성으로만 이해를 해도...

민희진 : 스토리가 있어요!

김영대 :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코드는 모르는데 스케일로만 쳐도 노래 구조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옛날 노래들에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민희진 : 왜냐하면 옛날에는 좀 진득하게 들었거든요.

김영대 : 맞아요.

민희진 : 그리고 봐봐. 이 아스트루드 지우베르투 앨범인데 육성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인스트로멘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Get Up' 음반에 'Get Up' 이라는 사실 그 중간에 그 간주 같은 곡을 넣었잖아요. 약간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음반을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의 어떤 흐름, 그리고 뭔가 분위기.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김영대 :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희진 : 사실 그 여유. 그리고 그게 여유가 어찌 보면 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반을 할 때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에 그 바이브를 주는 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가 된 느낌을 얻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제 뭔가 이제 아이돌 대중 음악이지만 그런 좀 아티스틱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게 또 익숙해지면은 또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

김영대 : 나는 그때 프로듀서 하셨던 슬로우 댄싱 있잖아요. (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저의 최애곡 중 하나인데 거기서 오는 한가로운 낭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민희진 : 되게 나른한-

김영대 : 그런 노래가 없어요. 요즘은 정말 없어요.

민희진 : 네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그렇게 막 간주곡을 이렇게 연주곡으로 간주를 이렇게 막 채우구,

김영대 : 그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게.

민희진 : 그런 여유가 사실 잘 없죠. 저희는 그걸 채울 때도 예를 들면 이게 피아노 버전이 좋냐, 뭐 플룻 버전이 좋냐 굉장히 고민을 끝까지 많이 했거든요?

김영대 : 하... 너무 나이스한 초이스였어요.

민희진 : 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걸 같이 했었던 김기현 대표가, 원래는 피아노 버전이었었거든요 그게? 근데 되게 이제 좋은 연주자들을 막 찾아가지구, 그중에 플룻 부시는 이제 분 중에 어떤 바이브가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이거 어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처음에 너무 좋은데, 나는 좋은데 이거 올드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김영대 : 그럴 수도 있겠죠.

민희진 : 왜냐면 이게 약간 생경하지만 또 플룻이 주는 약간 올드함이 살짝 있거든. 근데 올드에서 더 노스탤직한 그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가 방향성이 사실 노스탤직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플룻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봐봐. 끝까지 피아노 버전도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고 했는데 끝까지 아 이거보다 나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내가 그거를 버전을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준, 그걸 고민해서 갖다 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갖다 주면서 생색내지 않았거든. 이거 들어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듣고 좋은 것 같다. 그거를 또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뷔도 처음에 들었던 거랑 이제 조금 더 다른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자기도 그거를 또 고민해서 그걸 초이스하고. 어찌 보면 이제 작업이라는 거는 각각 다 이렇게 일련의 어떤, 자기들, 감독들만의 어떤 에고가 각각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고 그거의 합. 적당한 조합이 됐었을 때 사실 되게 이제 완성도가 거기서 이렇게 다 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들이랑 그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각각의 그 감독들의 특징이 있어요. 되게 다르거든요. 희원이가 갖고 있는 특징과 동글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영음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달라서, 얘네들을 디렉션을 줄 때도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누군가는 디렉션을 빼고, 마치 신우석 감독처럼. 신우석 감독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어! 허허! *(웃음)* 거의 그냥 혼자 하세요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어찌 보면 동글이도 사실은 건드리면 좀 안 되는 애였는데 나니까 좀 봐주는 거고. 희원이는 오히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야 얘기해줘! 막 이러는 스타일이고. 영음이는 엄청 계산이 이렇게 빠릿한, 아주 우리 중에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계산적인데 또 되게 로맨티스트. 얘는 방향성만 탁! 잡아주면 알아서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그리고 수정할 때 제일 명쾌한 스타일. 영음이.

아무튼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디렉션을 제가 줄 때 어떤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우리 애들한테 각자 주는 스타일이 다른 것처럼. 사실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각각의 성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춰서 해주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꼭 배려를 위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의 재밌는 작업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작업하는 게 재밌고 상대가 그렇게 해줬었을 때에 더 그게 이렇게 탁 올라오거든. 그 사람의 포텐이 이렇게 탁 터지거든? 그거를 유도하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함을 느꼈었던 건 이렇게 제작을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비즈니스의 과정으로 가면서 막 뭉그러질 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라는 건, 타이밍. 그리고 이제 매체와의 어떤 합, 교합. 그것도 이제 그게 탁탁 적시적소에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줘야 그게 쾌감이 생기거든. (그렇죠) 원래 쾌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설계자가 이렇게 쭉 보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쳐줬었을 때에 그 미묘한 그... 그게 있어요.

그리고 홈런은 언제 생기냐면 잘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예상치 못하게, 저는 우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실력자와 실력자가 우연치 않게. 우리가 뭐 홈런 치고 싶다고 다 홈런 치나? 근데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연마해가지고 짝 맞았을 때 홈런. 그러면 미친 쾌감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작업을 할 때 저는 이제 뭐 맨날 홈런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덕을 얻을 수 있게 이제 컨트롤을 좀 최대한 하는 게 저의 이제 그 어떤 궁극의 어떤 작업, 제 작업의 이상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창한 '경영과 프로듀싱'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 해야, 이게 디렉터가 한 명이어야.

근데 이거는 저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남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영과 프로듀싱이 분리됐었을 때 더 꽃을 피울 수 있고. 왜냐하면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니까, 나는 이 스타일이 맞아. 나는 해보니까 나는 내가 다 해야 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제 레이블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이 경영과 프로듀싱이 무조건 통합된 게 좋다가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분화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지금은 그런 시대네 아니네, 왜 그걸 따져?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해야 포텐이 터져. 그게 아티스트를 존중하는 일인 거죠. 사실은 작업자를 존중하는 일. 왜냐면 저 작업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문화를 존중하는 일이고 그런 게 사실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상한 어떤 이해관계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된 게, 결국에는 어쨌든 이런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부딪혀야 될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현상 속에서 제가 이런 발언의 기회도 갖게 된 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무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누가 만 명이나 이걸 보고 있겠어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17. 내가 경험한 인생은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민희진 :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 없이 나와서 그냥 주절주절 떠들다 가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김영대 : 참고로 저는 나름, 그걸 뽑아놨었어요.

민희진 : 저 3시간 반 떠든 것 같아요 벌써.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아무튼 이렇게-

김영대 : 나중에 김영대 토탈 분량 발언 몇 분 했는지 올라올 것 같아. 너무 난 좋았어요.

민희진 : 아니 긴 시간을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김영대 : 진짜 오늘 약간 얘기를 듣, 아니 들으려고. 되게 그러려고 마련한 자리였고.

민희진 :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어... 어쨌든 재밌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감사하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뭐, 어쨌든 분쟁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결론이 나야 되기는

하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매 순간순간 우리는 열심히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작업해왔던 방식처럼, 후회가 최대한 없는 결정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의미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내가 경험한 인생은 사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늙어서 얻어진 어떤 여유? 혹은 미덕? 인생의 미덕? 깨달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피곤하고 힘들지만 최대한 즐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즐긴다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네.

김영대 : *(웃음)* 즐긴다는 것도 요즘 너무 펀치라인처럼 쓰니까.

민희진 : 맞아요. 그게 희석이 됐어요. 좀 그 가치가.

김영대 : 그 안에 있는... 고통이나 어떤 스트럭을 알고 하는 즐긴다라는 말을, 의미를 알까 이런 느낌이 있어.

민희진 :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몇 년 전에 했던 약속이 갑자기 이렇게 *(웃음)*

김영대 : 원래 잊고 있었는데 그냥 어, 맞아요.

민희진 : 실현이 돼가지고 너무 제 입장에서 좀 뜻깊기도 하고

김영대 : 나중에 진짜 홀가분하게 (네) 아까처럼 음악들 들으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민희진 : 네. 그러면 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김영대 :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희진 : 어쨌든 되게 들어주신 분들한테도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네 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인가?

김영대 : 몰라요. 나 내일 스케줄 있는데.

(스탭 : 이제 수요일이에요.)

민희진 : 아 수요일인가?

김영대 : 수요일로 넘어갔네요.

민희진 : 아~ 화요일이었구나. *(김영대 웃음)* 네. 제가 뭐, 날짜 가는 줄 몰라가지고 아무튼.

김영대 :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민희진 : 또 네 또 조만간 또 뵙고.

김영대 : 진짜 또 부르면 나오실 거예요? 뉴진스 얘기하러 나오실 거예요 뉴진스?

민희진 : 아이 너무 오래 얘기하니까 또 안 불러줄 수도 있어요. *(웃음)*

김영대 : 그렇지 않아요.

(스탭 :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대 : 예. 왜냐하면 뉴진스의 커리어를... 아이 정규 내고 하면 좋은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스쿨 오브 뮤직에서 제가 좋은 인터뷰 그리고 분석 리뷰 콘텐츠 많이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채널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언젠가 민희진님 다시 모셔서 아까처럼 음악 들으면서 좋은 얘기, 진짜 낭만을 한번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민희진 : 하아... 네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네. 오늘도 편했지만.

김영대 : 그러니까. 근데 오늘의 편안함과는 또 다른 (네) 편안함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희진 :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대 :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에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희진 : 감사합니다. 네.